

湖蘇芝의 詩文學 研究

— 唐詩風을 中心으로 —

曹 喜 昌*

<目 次>

I. 序言	III. 湖蘇芝의 詩世界
II. 時代的 背景	IV. 結語

<국문 초록>

朝鮮초의 시문학은 崇文政策으로 世宗 이래 전례 없는 성황을 이루어 사림파와 사장과간의 대립을 초래하여 한때 문약을 거치기도 하였으나 宣祖朝를 거치면서 穆陵盛世의 개화를 가져왔다. 그 중 海東江西詩派의 일원으로 宋詩와 唐詩를 함께 아우르면서 漢詩史에 족적을 남긴 이가 ‘湖蘇芝’라 지칭되는 湖陰 鄭士龍(1491-1570), 蘇齋 盧守愼(1515-1590), 芝川 黃廷彧(1532-1607)이다. 이들에 대한 지칭은 대체로 ‘湖蘇芝’, ‘館閣三傑’, ‘海東江西詩派’로 불리워지고 있다.

許筠은 위 3인을 唐風을 지닌 시들을 창작하고 진작시켰음을 치하하면서 ‘湖蘇芝’라 호칭하였고, 정사룡은 孫谷 李達에게, 盧守愼은 白光勳과 崔慶昌에게 唐風을 전수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위 사실에 비추어 ‘湖蘇芝’는 宋詩를 唐詩로 전환시키는 교량적 역할을 하였으며 ‘三唐派’에게 唐風을 연수시킨 과도기적 인물들임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湖蘇芝’ 3인의 唐詩 구사에 대한 입체적인 조망을 한 연구가 거

* 성신여자대학교 강사 / hichang47@hanmail.net

의 없다. 여러 연구들은 3인의 개별적 연구에 한정하였고 몇 편의 연구논문에서 湖陰 정사룡과 蘇齋 노수신 간의 작품 성향에 대하여 언급이 있었을 뿐이다. 논자들은 허균의 시평(「惺叟詩話」)을 근거로 호음은 7언에 장하고 소재는 5언에 장하다고 두 사람을 견주고 있다. 그러나 소재보다 17년 아래인 황정욱에 대한 연구는 兩人과 상견하여 볼 때 미미한 편이다. 허균은 「惺叟詩話」에서 “우리나라의 시는 宣祖朝에 크게 갖추어졌으며 盧蘇齋가 두보의 법을 얻었고 黃芝川이 대를 이어 일어났다. 崔孤竹[崔慶昌]과 白玉峯[白光勳]이 唐詩를 배우고 李益之[李達]가 그 흐름을 밝혔다”고 하여 지천이 소재의 뒤를 이어 唐風을 구사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단편적으로 언급되었던 ‘호소지’ 문학의 특징들을 상호 비교하고 지금까지 ‘湖蘇芝’라고 호칭하면서 가설이나 문제 제기에 머물러 있었던 사안들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그들에 대한 문집과 그들을 연구한 선행 논문들을 발췌하고 연구에 필요한 자료들과 시문 문구를 찾아내어 새로운 시각으로 조망하였다.

【주제어】 湖蘇芝, 館閣三傑, 唐詩, 海東江西詩派, 三唐派

I. 序言

朝鮮초의 시문학은 崇文政策으로 世宗 이래 전례 없는 성황을 이루어 사림파와 사장파간의 대립을 초래하여 한때 문약을 거치기도 하였으나 宣祖朝를 거치면서 穆陵盛世의 개화를 가져왔다. 그 중 海東江西詩派의 일원으로 宋詩와 唐詩를 함께 아우르면서 漢詩史에 족적을 남긴 이가 ‘湖蘇芝’¹⁾라 지칭되는 湖陰 鄭士龍(1491-1570), 蘇齋 盧守愼(1515-1590), 芝川 黃廷彧(1532-1607)이다. 이들에 대한 지칭은 대체로 ‘湖蘇芝’, ‘館閣三傑’, ‘海東江西詩派’로 불리워지고 있다.

이들의 논제는 1931년 金台俊에 의하여 사인문장계열로 분류하면서 언급하였고,²⁾ 이병기가 처음으로 위 3인을 ‘館閣三傑’이라 지칭하였다.³⁾

1) ‘湖蘇芝’의 명칭은 許筠에 의해서 처음으로 호칭되었다.

金台俊은 『國文學全史』에서 朴闇, 李荇, 朴祥, 成倪, 申光漢, 鄭士龍, 盧守愼, 黃廷彥을 해동강서시파로 지칭하였고, 李家源과 閔丙秀가 연구항목으로 설정하였으며, 이들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李鍾默의 『海東江西詩派研究』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호소자’ 3인은 그들의 선배들인 朴闇, 李荇, 朴祥의 뒤를 이은 해동강서시파였으며 唐詩를 구사한 唐詩 작가들이었다. 또한 그들은 李達, 白光勳, 崔慶昌에게 당풍을 전수한 교량적 역할을 한 인물이었다. 그러함에도 이러한 總論적이고 原論적인 논의 외에는 그들과 연결되는 실체적 연구가 거의 없는 형편이다.

본 연구자는 이와 같은 연구 실적의 난맥이 어디에 있는가를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이것은 위 해당 당사자 간을 소통시킬 연관된 고리가 지극히 협소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호음 鄭士龍은 처세에 밝고 보편적으로 관운이 좋아 大提學으로 文衡을 담당하여 80의 장수를 누리고 주로 酬唱을 통하여 館閣文人으로 활동하였으며,⁵⁾ 소재 盧守愼은 20여 년간 유배의 풍진을 거친 후 해배 뒤에는 비교적 관직이 높아 領議政에 오르기도 한 인물이었다.⁶⁾ 두 사람의 詩風은 5언과 7언의 우열로 세인의 비교평가를 받은바 있으나 소재보다 17년 年下인 지천 황정욱은 위 兩人에 비하여 險亂한 인생 역정을 살아왔다. 壬辰亂 때 호종했던 두 왕자와 함께 포로가 되었는데 왕자를 살리기 위하여 당시 체포되었던 왜장에게 거짓 항복문서를 써준 것이 원인이 되어 풀려난 후 탄핵되고 종성유배 후 해배되었으나 끝내 관직에 복귀되지 못하고 寓舍에서 死去하였다. 설상가상으로 500여 편의 詩들은 그의 아들 黃赫에 의하여 수습되었으나 黃赫이 李爾瞻을 비방하는

2) 金台俊, 『朝鮮漢文學史』, 朝鮮語文學會, 1931.

3) 李秉岐, 『國文學全史』, 신구문화사, 1957.

4) 李鍾默, 『海東江西詩派研究』, 太學社, 1994.

5) 鄭士龍, 『湖陰雜稿』, 『韓國文集叢刊』 25, 民族文化推進會 標點本.

6) 盧守愼, 『蘇齋集』, 『韓國文集叢刊』 35, 民族文化推進會 標點本.

시를 써서 역모 죄로 참형을 받아 결국 재산과 황정욱의 시도 궁중에 압수되던 중 그의 사위 李郁이 도배지로 쓰려했던 황정욱의 유고를 貴人으로부터 비싼 값으로 구입하였는데 근체시 194편만이 남아있게 되어 이것이 현존 작품 전부이다.⁷⁾

이로 인하여 그의 詩文學 연구에 여러 한계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허균은 당시 芝川의 역량과 唐詩 풍모를 보고 호음과 소재와 格을 함께 하여 ‘湖蘇芝’라 지칭하였으며, 『宣祖實錄』은 “그의 행적이 성격의 오만으로 적이 많았으며 다만 詩作에 있어서는 晚唐의 纖弱, 奇麗한 시풍이 유행하는 가운데 독자적으로 두보를 배워 雄建, 奇悍한 풍격의 시를 창작하였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로 미루어 그의 詩는 生의 성패를 차치하더라도 戰亂과 유배를 겪으면서도 堅貞한 인격과 浩然한 기질, 강렬한 개성과 탁월한 문학적 기질을 갖춘 작가로 조명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현재까지 ‘황정욱 연구’는 具仕會의 「黃廷彧論」 등 數篇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까지 ‘湖蘇芝’ 3인의 唐詩 구사에 대한 입체적인 조망을 한 연구가 거의 없다. 여러 연구들은 3인의 개별적 연구에 한정하였고 몇 편의 연구 논문에서 湖陰 정사룡과 蘇齋 노수신 간의 작품 성향에 대하여 언급이 있었을 뿐이다. 논자들은 허균의 시평 「惺叟詩話」를 근거로 호음은 7언에 장하고 소재는 5언에 장하다고 두 사람을 견주고 있다. 그러나 황정욱에 대한 연구는 兩人과 상견하여 보이지 않는다.

허균은 「惺叟詩話」에서 “우리나라의 시는 宣祖朝에 크게 갖추어져 있다. 盧蘇齋가 두보의 법을 얻었고 黃芝川이 대를 이어 일어났다. 崔孤竹 [崔慶昌]과 白玉峯 [白光勳]이 唐詩를 배우고 李益之 [李達]가 그 흐름을 밝혔다”⁸⁾고 하여 지천이 소재의 뒤를 이어 唐風을 구사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을 뿐이다.

7) 黃廷彧, 『芝川集』, 『韓國文集叢刊』 41, 民族文化推進黨 標點本.

8) 許筠, 『許筠全書』(大東文化研究院), 「惺叟詩話」, pp.233-234, “我朝詩至宣廟大備 盧蘇齋得杜法 而黃芝川代興 崔白法唐而李益之闡其流”

‘湖蘇芝’의 시풍은 시대적 배경으로 볼 때 아직까지 唐詩風으로 완착되기 직전의 시기였으며 그들이 作詩 초기에 法했던 黃陳의 잔영이 그대로 배어 있어 唐詩 작가로 구분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들의 뒤를 이은 ‘삼당파’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당풍작가로 구분하는데 이의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호소지’는 唐詩의 출중함을 잘 알고 있었기에 후일 黃陳의 잔영을 허물거나 이를 극복하고 唐詩의 전범인 李杜의 법을 취하면서 당시풍의 다수 작품들을 창작하였다.

그들의 詩들 중 唐風으로 구획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으로 당과 송의 문학적인 美의 추구에 대해서도 견해의 차이가 있으며 작품이 지니는 다면적 특징들이 어느 時期, 어느 詩人의 것만 받아 들였다기보다는 唐代 각 시기의 모든 唐詩의 특색을 포함시킴은 물론 宋詩의 부분적 長處를 취함으로써 딱히 唐詩로 단정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다만 그 시가 지니는 여러 색채를 통하여 그 詩風을 가름할 뿐 인 것이다.

본고에서는 ‘호소지’의 詩文 중에서 ‘唐詩風을 중심으로’라는 題材를 설정하였으므로 唐詩에 대한 의미에 대하여 살필 필요가 있다.

문학을 논할 때 漢文, 唐詩, 宋詞 등으로 표현하는데 漢·唐·宋이라는 시간개념과 함께 문학 형식을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漢代에는 散文이 많이 지어졌고, 唐代에는 詩가 많이 지어졌으며, 宋代에는 詞가 많이 지어졌으니 이는 각 王朝別로 이러한 文學樣相이 확립, 隆盛되었음을 뜻한다.⁹⁾

漢詩의 경우, 唐詩는 漢詩 체제의 완성기이며 李白, 杜甫 등 不朽의 대가들이 활발하게 활동한 漢文學의 전성기이다. 후세 문인들의 詩學修鍊에 있어서 하나의 典範이 되었고, 唐이라는 분위기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批評基準이 되었으며, 『全唐書』에서는 “시가 唐에 이르러 여러 體와 또한 여러 法이 갖추어졌으므로 詩를 말하는 사람은 반드시 唐人을 標準으로 삼는다”라고 하였다¹⁰⁾.

9) 李炳漢, 『漢詩批評의 體例研究』, 通文館, 1985.

王士禎은 『師友詩傳續錄』에서 宋詩가 唐詩보다 못하다고 단정지으면서 그 까닭을 “唐詩는 主情의이기 때문에 내면에 축적된 情緒가 깊고, 宋詩는 主氣의이기 때문에 시의 표면에 본래의 뜻이 곧바로 드러나므로 唐詩에 못 미친다는 것이었다.”¹¹⁾ 고 하였다.

II. 時代的 背景

고려 이후로 내려오던 강서시풍은 明의 前後七子들이 주창하던 ‘文必秦漢,’ ‘詩必盛唐’의 영향으로 국내외에 영향을 주면서 李攀龍이 唐詩刪을 엮자 허균은 『國朝詩刪』을 펴냈고 前後七子를 비의하여 前後五子를 설정하였다. 『惺所覆瓿藁』는 王世貞의 『弇州四部藁』의 체제를 본뜬 것이었고 허균이 특히 강서시풍을 통박하면서 盛唐爲法說과 妙悟說을 들고 나온 엄우의 『滄浪詩話』의 논리에 깊은 공감을 보이고 있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¹²⁾

무미건조한 시, 공감을 일으키지 못하는 몇 명을 위하는 기교주의 詩風은 중국을 통해 ‘詩必盛唐’의 주장 앞에 설득력을 잃게 되고 안팎의 욕구와 맞물리면서 ‘自宋易唐, 自蘇還杜’의 學唐詩風은 더욱 가속화되어 詞壇의 주된 흐름이 되었다.

이 시기 作詩뿐만 아니라 詩를 평가하는 데에도 절대적 기준이 되었는데, 허균의 『惺所詩話』와 『鶴山樵談』을 비롯하여 李晬光의 『芝峯類說』, 申欽의 『晴窓軟談』 등의 詩話書의 활발한 저술과 흥만종의 『詩話叢林』으로 대표되는 비평문학의 발달은 시풍의 변모와 함께 요구된 이론화의

10) 『全唐書』, 「序」, “詩至唐而衆體悉備 亦諸法畢該 故稱詩者必視唐人標準”

11) 王士禎, 『師友詩傳續錄』, “問: ‘宋詩不如唐詩者 或以氣厚薄分耶,’ 答: ‘唐詩主情 故多蘊蓄 宋詩主氣 故多徑露 此其所以不及 非關厚薄.’”

12) 박영호, 「許筠의 詩論研究」, 『韓國漢文學研究』 제17집, 韓國漢文學會, 1994, pp.68-73. 참조. “許筠의 「石洲小稿序」를 보면 嚴羽의 妙悟說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육구를 담아내고 있으며, 詩意識의 변화를 추구한 허균의 『國朝詩刪』 등의 詩選集도 새롭게 엮어졌다.

더디어 車天輅에 의하여 校選하고 金玄成이 批閱한 『樂府新聲』은 學唐 노선을 표방한 이들이 만든 최초의 시화집이다. 이 책에는 明 宣祖에 활동한 崔慶昌·白光勳·林悌·李達·李晬光 등 五人의 樂府詩 175수가 실려 있다.¹³⁾

조선 건국 후 주자 성리학에 정체성을 견지해왔던 조선 초기는 宋詩風이 대종이었다.

그러다가 明나라의 복고주의 문학사조가 일어났고 조선은 鑄子의 발달로 『纂註分類杜詩』 등이 간행되는 등 일반에 번져나가고, 唐詩風으로의 변전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조선조의 學唐의 경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¹⁴⁾

金宗直 ⇒ 李胄之 ⇒ 金淨 ⇒ 湖蘇芝 (정사룡, 노수신, 황정욱) ⇒ 三唐派 (이달, 백광훈, 최경창)

선조 때에 이르러 蘇齋와 芝川 黃廷彧이 杜甫의 법을 얻었고 三唐詩人이 뒤를 이었으며¹⁵⁾ 湖陰 鄭士龍도 일찍이 孫谷 李達에게 杜法을 가르쳐 주었다. 湖陰도 학당의 시풍을 이루고 있었으므로 ‘湖蘇芝’는 모두 唐詩風이었으며 學唐派라고 할 것이다.

당시 우리나라는 「唐音」이나 「唐詩合解」는 집집마다 필수책이었고 李白의 『纂註分類李太白集』이나 杜甫의 『纂註分類杜詩』를 원본처럼 읽었고 번역본인 『杜詩諺解』는 활자본에다 목판본까지 나돌았다. 고려 이후는 이치를 따진 성리학을 수용, 宋詩가 크게 유행하였고 조선 초기까지 내려오다가 唐詩를 읽기 시작한 후부터 性情을 즐기는 唐風으로

13) 車天輅, 『樂府新聲跋』.

14) 黃玑, 『黃玑全集』, 「讀國朝諸家詩」.

15) 許筠, 『許筠全書』, 「惺叟詩話」, pp.233-234. 註 8) 참조.

뒤바뀌었던 것이다.¹⁶⁾

본고의 題材가 唐詩를 중심으로 설정하였으므로 唐詩의 변천사를 언급하고자한다.

唐詩는 初唐·中唐·盛唐·晚唐으로 시대를 구분한다. 初唐은 唐의 개국으로부터 현종 즉위(712년)까지의 90여 년간으로 齊 梁에서 수나라에 이어지면서 唯美主義를 계승하여 시의 형식과 詩作 기법을 크게 발전시키고 近體詩인 율시의 격률을 이룩하던 시기였다.¹⁷⁾

盛唐은 玄宗의 開元(713-741), 天寶(742-755) 년간을 중심으로 安史의 난이 일어나기까지 중국시는 唐詩가 대표하고 다시 당시는 盛唐詩가 대표한다고 말하고 있다. 盛唐의 기초는 張九齡(678-740), 賀知章(659-744) 등에 의하여 낭만주의 기질을 바탕으로 개성을 발전시키던 시기였으며 다시 자연시파인 王維(701-761)와 孟浩然(689-740)이 전원을 향한 자연시를 구사하게 되고 다시 王昌齡(698-757)과 李頎(690?-751?) 등의 邊塞派에 의하여 국경의 문제와 처절한 전쟁, 인간문제가 주제로 다루어졌으며 시형식도 자연시파가 5언을 위주로 한데 대해 이들은 7언을 위주로 하였다. 동시대 李白(701-762)이라는 위대한 시인은 아름다운 자연시와 웅대한 樂府詩를 모두 흡수하여 5언, 7언 모두를 다 잘 지었고 古詩와 絕句의 창작기교와 의경의 표현이 최고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¹⁸⁾

中唐(756-835)은 안사의 난으로 唐제국이 일시에 파괴되고 大族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정치와 경제 질서가 무너지며 현실주의적인 감각으로 새로운 자아를 발견한 시기로 杜甫(712-770)에 의하여 불이 당겨지는데 두보는 盛唐 시대의 이백과 함께 李杜로 並稱되었는데 이백의 성격이 격정적이고 자유분방한데 비하여 두보는 儒家的인 윤리관을 바탕으로 현실 속에서 착실한 삶을 영위하려 하였고 그의 1,400여 詩는 그 시

16) 李炳嘯, 『韓國漢詩의 理解』, 民音社, 1991.

17) 金學主, 『中國文學史』, 신아사, 2008, p.194.

18) 金學主, 위의 책, p.202.

대의 사회상을 잘 반영하였기 때문에 ‘詩史’라 불리게 되었는데 그의 시가 높은 평가를 받는 이유 중 하나는 詩律이 엄격한 율시를 잘 지었다는 것이다¹⁹⁾.

‘湖蘇芝’의 시풍은 두보를 모범으로 하였으며 특히 노수신은 “두보의 조선적 재현”이라는 평을 받기도 하였다. 두보의 뒤를 이어 中唐 후기 작가인 白居易(772-846)를 필두로 元稹(779-831), 韓愈(768-824), 孟郊(751-814), 賈島(793?-865?), 柳宗元(773-819) 등에 의하여 詩形과 창작수법이 크게 발달되었다²⁰⁾.

晚唐은 당 제국의 정치가 혼미해져 파국으로 치닫던 시기로 대표적인 시인은 杜牧(803-852)과 李商隱(812-858)이다. 두목의 시가 아름답고 멋있는 표현을 추구하여 7언 율시와 절구를 잘 지는데 반해 李商隱은 두목과 달라 괴벽스런 典故를 많이 사용하고 지나치게 함축적인 표현을 많이 썼고 艷麗한 정을 노래한 것들이 많다²¹⁾. ‘호소지’ 중 湖陰 정사룡의 시가 李商隱을 모범으로 하고 있음을 살필 수 있다.

16, 17세기 學唐風의 전래양상을 보면 1단계는 江西詩風의 무계중심에서 서서히 당시풍의 매력에 눈이 떠가던 시기였다. 金淨을 비롯하여 李胄, 兪好仁, 申從濩, 羅滉, 朴淳, 鄭士龍, 盧守愼, 黃廷彧, 鄭澈, 申光漢, 尹根壽, 權擘, 許筠 등이 그 先聲을 열었던 시기이다. 2단계는 崔慶昌, 白光勳, 李達로 대표되는 三唐詩人의 시대로 같은 시기 林悌와 許蘭雪軒 등 여류의 등장도 이채로우며 晚唐을 배워 기력이 盛唐만 못하다는 평을 받는다. 다음 3단계는 權鐸, 李安訥, 許筠, 李晬光, 車天輅 등이 詞壇을 주도하여 초기 학당풍이 晚唐의 나약함에 거친 데에 대한 반성으

19) 車柱環은 『中國詩論』, <唐代諸家の 詩說>, p.65.에서 두보를 李白, 王維와 함께 盛唐 三代家로 구분하여 盛唐 시인으로 구분하고 있다. 본고는 杜甫의 시 性向과 시대적 배경으로 보아 中唐 시인으로 구분함이 가하다고 보았다.

20) 金學主, 앞의 책, p.214.

21) 金學主, 위의 책, p.239.

로 盛唐風의 추구를 주요 노선으로 제기하였고 시의 형식에서는 여전히 七言絶句가 각광을 받았으며 특히 古詩長篇들이 선호되었고 권필의 추종이 높았다. 4단계는 擬古風에 강한 집착을 보인 鄭斗卿으로 대표되는 시기로 같은 시기 金得臣, 李敏求, 李明漢 등이 활동하였다. 의고풍의 장편고시는 정두경에 의하여 주도되어 광해의 亂政과 丙子胡亂 등의 격변을 치르면서 진부한 양상이 되었는데 擬古詩는 개성적인 의경의 창출과 자신의 개성을 시로 형상화 하는 데에는 실패하고 前代의 모방이나 확대 재생산에 머무는 한계를 드러내었다. 唐詩風은 이와 같은 4단계를 거쳐 詞壇의 활력소를 불어넣고 소임을 다하였다²²⁾.

본고는 學唐의 초기 단계인 ‘湖蘇芝’의 활동 배경을 중심으로 宣祖朝 당시의 시풍변화를 개관하고자 한다.

Ⅲ. 湖蘇芝의 詩世界

1. 湖陰 鄭士龍

1) 生涯

鄭士龍(1491, 성종 22-1570, 선조 3)은 조선 전기의 문신이다. 본관은 동래이고, 자는 雲卿, 호는 湖陰이다. 1509년(중종 4)생원시를 거쳐 별시 문과에 급제하고 1514년 사가독서 하였으며, 1516년 문과 증시에 장원하여 사간이 되었다. 벼슬은 부제학·예조판서·工曹判書·大提學을 지냈다. 1558년 과거 시험 문제를 응시자에게 누설한 죄로 파직되었다가 다시 중추부 판사로 복직하고 공조판서가 되었다. 1563년 이량이 제거될 때 그 일당으로 몰려 사직 당했다. 詩文과 音律에 뛰어나고 글씨도 잘

22) 정민, 「16, 17세기 學唐風의 性格과 그 風情」, 『穆陵文壇과 石洲權輿』, 太學社, 1999, pp.37-45. 참조.

썼으나 貪虐하다는 비난을 받았다. 문집에 『湖陰雜稿』, 저서로 『朝天日錄』이 있다. 정사룡의 『朝鮮王朝實錄』의 卒記는 實錄廳 사람들이 士林派로서 다소 편견의 측면이 있으나 매우 부정적이다.

2) 정사룡의 詩世界

정사룡 詩의 특징은 館閣詩人으로써 述語의 구사가 뛰어났으며 韓愈를 배워 웅장함 속에 기이함을 보이고 있다. 그의 특장은 7언에 있는데 그는 주로 외교접빈을 상대하여 시를 지었고 시형식도 엄격히 지켰다. 또 칠언의 ‘應制詩’의 경우는 임금이 운을 내릴 때 즉각 화답해야 하는 것임에 ‘應口輒對’의 숙련을 거쳐야 되는 바, 館閣文人으로서 수많은 단련을 거치고 타고난 문학성을 갖추었기 때문에 가능하였으리라고 본다.

정사룡은 動詞와 形容詞등의 虛字를 많이 넣어 움직임의 주로 묘사하여 動的인 심상이 매우 강하다. 이에 비하여 노수신은 명사의 實字에 한글자 정도의 술어만 두어 靜的인 면모가 더욱 뚜렷이 부각되고 있다.

정사룡의 시에 나타난 主題는 安分과 현실 세계에서의 超脫이 주를 이루고 景物을 묘사하고 있는 작품에서는 정치 현실에 대한 울분을 투영하기도 하였다. 그가 추구하는 西崑體는 晚唐을 추종하는 것으로 호음의 시에서는 晚唐風이 검출되고 있음을 확인 할 수가 있다.

煙沙浩浩望無邊	모래펄 넓고 넓어 끝이 없는데
千仞臺臨不測淵	천길 누대 깊은 물에 다다랐구나
山木俱鳴風乍起	바람 잠깐 일자 산 나무 함께 울고
江聲忽厲月孤懸	강물소리 거세지는데 달 외로이 걸려
平生牢落知誰籍	평생의 뜻 잃었는데 누굴 믿느냐
投老迢迢只自憐	늘그막에 머뭇머뭇 절로 가련해
擬着官袍放舟去	관복을 걸쳐 입고 배 띄워 떠나가
騎鯨人遠問高天	하늘에 이데백의 옛 일 물으리. ²³⁾

23) 鄭士龍, 『湖陰雜稿』, 「後臺夜坐」.

이 七言律詩는 많이 회자된 시로 본래 2首 中 제2수이다. 前篇을 읽어야 원칙이나 여러 詩話에 오르내린 작품으로 작자가 밤에 높은 누대에 올라 지나온 한평생을 회상해 보며 실의에 빠진 자신의 모습을 읊은 詩이다. 起聯은 밤안개 아스라이 끝없는 모래벌판과 깊은 연못가 높은 대에 올라 바라보는 夜景을 읊었으며 頷聯은 갑자기 불어온 바람에 떠들썩한 산 나무들의 울림과 여울목의 거센 물소리를 듣고 고개를 드니 달이 외롭게 걸렸다고 하여 문득 지나온 인생을 되돌아보게 하며, 외로움을 일깨워 주는 밤의 분위기를 나타냈다. 頸聯은 한평생 쓸쓸함의 이유를 스스로 알게 되었다는 自省의 목소리와 함께 늙어감에 따라 점차 인생사 차질이 생겨 비틀거리는 자신의 모습을 가없이 바라보고 있다. 제3, 4구의 對聯에서 ‘달이 외롭게 걸렸다’의 마무리가 참스럽고 흠이 없는 포착이다. 혹 강물 소리와는 어울리지 않는 정경이라 할 지 모르나 하늘의 달과 함께 정을 나누는 정감에서 잠을 못 이루는 밤이 시샘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 시의 妙味는 제3, 4구의 대련에 있는데 제3구의 제재는 산에 부는 바람이고 4구의 제재는 강 위에 떠있는 달이다. 산과 강은 바람과 달로 하여 요동친다. 산의 나무가 울고 강의 물결이 거세다. 산속 나무의 울음은 바람 때문이고, 강의 물결이 거세졌기에 공중에 걸린 달이 한결 외롭다. 자연의 아리따운 조화와 균형, 자연의 이치에 따라 삶을 누리는 진실성이 덧보이는 작품이다. 뒷부분은 고래를 타고 신선이 되어 하늘에 오르는 李白을 부러워하며 태평성세에 친구에 의지하여 아등바등 살아온 杜甫의 삶을 통하여 李白이 고독을 씹었던 것처럼 번민하는 元老의 뒤안길을 엿볼 수 있다. 평생을 엮매이게 하였던 벼슬을 그만두었는데, 불확실한 장래에 관해 고래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는 李太白에게 물어볼까 하면서 羽化登仙하는 요행심도 엿보인다. 이상은에서 볼 수 있는 염려한 정과 騎鯨이라는 시어를 통하여 晚唐 시풍을 엿볼 수 있다.

일찍이 정사룡에게 詩를 배우던 李益之가 어느 날 스승의 평생 得意

作을 물었더니, 위 詩의 3·4구절인 “山木俱鳴風乍起, 江聲忽厲月孤懸”을 꼽았다고 하는 일화가 있다. 일생의 절창으로 스스로 천거한 구절인 만큼, 진작부터 好事家들의 논란이 많은 작품이다.²⁴⁾

花滿園林葉未濟 꽃은 뜰에 가득하고 잎은 들쭉날쭉
 恰回殘夢有鶯啼 꿈길을 깨울 듯 피꼬리 울음소리 들리네
 蝦鬚不碍東風過 늪은이 성근수염 봄바람에 날리고
 無奈輕陰壓額低 얇은 그늘이 이마를 누른들 어찌리.²⁵⁾

1554년 吏曹判書로 재직할 당시 지은 詩이다. 봄날의 흥취를 적어 李堂後에게 보낸 것인데 화려한 館閣의 기운이 느껴지는 작품이다. 이 시기는 宦路期가 안정되어 있었던 시기로 贈別詩와 挽詞, 宴飲詩, 詠物詩 등을 창작하여 개인의 인생을 되돌아보는 시들이 창작되고 있다.

시제는 봄이 되어 꽃은 만발한데 잎은 이제 약간씩 돌아나고 있는 이른 봄날의 풍경이다. 珠簾 사이로 봄바람이 들어오고 새어 들어오는 햇살을 받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허균이 『國朝詩刪』에서 風致라고 평한 것처럼 생활 속의 맑은 기운을 느끼게 하고 있다. 承句와 轉句는 피꼬리 울음소리와 봄바람이 봄의 흥취를 느끼게 하고 있으며 轉句의 ‘蝦鬚’는 화려한 艷情을 묘사하는 시어에 등장되는데 참신한 감각을 느끼게 한다. 결구에서 그림자가 이마에 비침이 마치 무게를 느끼게 묘사하여 목적어 ‘額’과 서술어 ‘低’를 통하여 시간의 경과에 따라 體感指數가 달라지도록 느끼게 하고 있는 치밀성이 돋보인다. 정사용은 李商隱을 통하여 詩의 難澁함과 더불어 화려함도 함께 배우면서 哀想에 흐르지 않고 있다.

五更靴滿午門霜 새벽녘 오문에는 서리 신발이 가득한데
 擬攝仙班仰穆光 용상 문미에서 아름다운 광채를 앙모한다.

24) 李炳壽, 앞의 책, p.136.

25) 鄭士龍, 『湖陰雜稿』, 『南宮日錄』, 『春興三絕寄李堂後』.

管裏固知難覩人	악기 소리 속에 진실로 위대함 엿보기 어렵고
葵心元不異傾陽	해바라기 마음 원래 해를 향하는 것과 다르지 않네.
鷄人罷報宮鴉亂	계인이 파회를 알리자 궁궐의 까마귀는 어지럽고
虎士虛陳輦路長	호사가 진을 비우니 황제의 길은 길기도 하구나
擲額謝霑光祿供	답전에서 음식을 흡족히 내려주심을 사레하니
九關如海正茫茫	궁궐의 은혜는 바다와 같아 실로 아득하여라. ²⁶⁾

1534년 중국에 사신으로 가서 자금성의 오문에서 天子의 조회를 알현하고 쓴 작품으로 館閣詩의 전형이다. 두보의 시 「早朝大明宮」에서 의경을 취하였으며 허균은 『國朝詩刪』에서 “豐麗渾重” “何等氣概”라고 찬하고 있다. 首聯은 새벽에 조회참석을 위하여 입궐하려는 신하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으며 下句는 용상 가까이에서 황제의 풍채를 영광스럽게 대하고 ‘穆光’이라는 단어로 온화한 천자의 얼굴빛을 표현하였다. 신발에 서리가 묻어있음은 일찍이 대궐에 들어감을 말하는 것이고 下句에서 仙班의 仙은 궁중의 사물을 말할 때 쓰는 수식어이다. 頷聯 下句는 소국의 사신이 조회의 웅장한 음악소리에 넋이 나가 주눅이 들어있는 모습과 결국 해바라기가 해를 향해 있음과 같은 尊崇의 이치를 표현하였다. 下句는 조회를 마치는 종소리에 까마귀가 난무한 모습과 웅장한 무사들에 의하여 길을 열면서 천자가 퇴정하는 모습을 그리고 館閣用語인 鷄人, 宮雅, 處士, 輦路, 光祿의 단어를 구사하였다. 尾聯에서는 천자의 내려주신 후덕함에 감사하고 대궐의 크기가 바다와 같다는 것은 실경의 크기이면서 은혜의 깊음을 상징하고 있다. 이 작품은 入闕, 朝會, 謝恩, 退廳의 단계를 조직의 美로 구사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정사룡은 西崑體나 韓愈의 시를 배울 때 화려하고 奇異한 면과 僭越함을 따르면서도 의경의 조직이 치밀함을 바탕으로 있음을 알 수 있다. 杜甫의 풍을 느끼게 하는 작품으로 보아 李達에게 두보를 가르쳤음을 짐작할 수 있다.

26) 鄭士龍, 『湖陰雜稿』, 「見朝」.

3) 정사룡의 詩評

정사룡의 詩는 五言詩와 七言詩가 대부분이며 館閣文人의 특징인 賦의 형식이라던가 다른 형식의 詩는 드물고 散文의 양도 많지 않은데 그것은 정사룡이 外交接伴 업무에 일생을 보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정사룡은 近體詩를 중요시하여 구수, 평측, 대우 등을 엄격히 지켰다. 정사룡 스스로 자서에서 밝힌 바대로 그는 평생 동안 근체시의 聲律에 힘썼다.

나는 젊어서 급제후 후 바로 옥당에 들어가 문목 이외에는 다른 일에는 종사하지 않으려 하였기에 얻은 결과가 모두 거칠고 경솔할 뿐 전아하지 못하다. 장편의 산문에 이르러서는 일찍이 뜻을 두지 않았고 근체시 나머지 성률에만 종사하였다. 평생 응접함에 있어서 빨리 짓고 억지로 지은 가운데서 나오지 않는 작품이 없었기에 한적한 속에서 읊조린 작품은 백에 하나도 없다. 그리하여 마음은 비루하고 의사는 천박하여 내버려 두고 간수하지 않았다.²⁷⁾

정사룡의 시가 “협벽하고 신기하며 강건하다”는 제가들의 평을 받고 있는데 정사룡의 시에는 자주 보이는 장엄한 경물의 묘사를 통해 悲憤과 慷慨의 정을 기탁하는 방식은 모두 송나라 黃庭堅을 배운 이유에서다. 황정견과 진사도를 배운 강서시파의 영향을 받은 우리나라의 시인들은 杜詩에 대한 상당한 식견을 가지게 되었다. 정사룡은 俗語, 口語體, 朝鮮의 人名, 地名 등을 시어로 하여 속된 표현을 우아하게 구사하였는데 이러한 그의 조탁에 이수광이 평하기를 “지난날 정사룡은 諸書를 분류 묘사하여 큰 주머니에 담고, 매번 시를 지을 때마다 반드시 가지고 다녔다. 그런 까닭에 그 시는 억지로 끌어다 보태고 깎아 다듬은 자취가

27) 鄭士龍, 『湖陰雜稿』, 「自序」, p.3, “余早世釋褐旋入玉堂, 文墨之外, 志不役也. 而所得皆粗率不典, 至於長篇散文, 未嘗屬意, 從事近體聲律之餘. 平生應接, 無非出於疾書荀具之中, 閑適諷詠之作, 百不居一, 故心鄙意賤, 輒棄不收.”

많아 평온한 기상이 아예 없으니 대개 또한 이 병에 걸린 것이다.”²⁸⁾라고 하였다.

그는 두보를 섭렵하지 못했는데 「荒山戰場」은 이성계의 황산대첩을 적은 작품으로 明의 吳明濟가 “용을 잡을 솜씨로 개를 잡아 아깝다”고 하여 그가 唐詩를 배우지 못했음을 안타깝게 여겼다고 한다.²⁹⁾ 정사룡은 難澁한 典故와 험박한 글자를 시어로 구사하여 기이한 의경을 보이는 江西詩派의 영향을 받았으며 李商隱을 모범으로 하는 西崑體를 겸하여 웅장하고 기이하며 화려하면서도 엄중한 작품을 남긴 시인이다. 그가 法했던 李商隱, 李賀, 韓愈, 黃庭堅이 奇癖의 시풍을 자랑하던 인물임에 비추어 그들을 배워 기이하고 험박한 풍격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할 것이다.³⁰⁾

호음 정사룡은 시를 지을 때 소식과 황정건을 위주로 하였지만 만년에 이를 뒤우치고 매번 杜牧과 李商隱의 시를 읽었다.³¹⁾

이와 같이 정사룡은 강서시파에 큰 영향을 미쳤던 李商隱을 함께 배우면서 언어의 조탁과 의경의 조직과 단련, 典故의 활용 등을 통하여 독자적인 시세계를 구축하였고 李賀와 韓愈 등 奇癖의 시풍을 자랑하는 인물들의 특성을 수용하여 기이하고 험박한 풍격을 구사하게 되며 정사룡이 배운 西崑體도 晚唐을 추종하게 됨으로 호음의 시에서는 강서시풍과 艷麗한 晚唐風이 함께 검출된다고 할 것이다.

28) 李暉光, 『芝峯類說』(이종은·정민 共編, 『韓國歷代詩話類編』, 亞細亞文化社, 1988), p.181, “頃世 鄭士龍 類抄諸書, 盛以大囊, 每有製作, 必以自隨, 故其詩多牽補斧鑿之痕, 絕無平穩底氣象, 蓋亦坐此病耳.”

29) 『小華詩評』, p.126, “鄭湖陰雲卿之荒山戰場詩, 商聲帶殺林巒肅, 鬼憐憑陰堞疊荒 未嘗不歡其勁悍”

30) 『小華詩評』, p.761, “鄭湖陰士龍, 奇古峭拔, 一世萎累之氣, 可與唐之長吉義山, 竝較才力云”

31) 李暉光, 『芝峯類說』 卷14, p.280, “鄭湖陰爲詩, 主蘇黃, 晚年 心悔之, 每讀樊川義山.”

정사룡은 주로 중국 사신들과의 酬唱을 위하여 단순히 중국의 시를 모방한 것이 아니라 방법적인 면을 수용하여 자신의 詩世界를 만든 것이다. 더불어 館閣詩人으로서의 형식에 치우친 시 이외에도 현실에 대한 懷疑와 挫折, 인생에 대한 省察, 田園에 대한 陶醉와 歸去來를 읊었던 다양한 詩를 통하여 볼 때 館閣詩人이면서 강서시파의 一擘으로 唐風을 진작시킨 格調 높은 시인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2. 蘇齋 盧守愼

1) 生涯

蘇齋 盧守愼(1515-1590)은 조선 中宗朝부터 宣祖 때의 정치인이자 시인으로 자는 科會, 호는 蘇齋(蘇齋), 伊齋, 暗室, 茹芝老人이다. 본관은 光山으로서 1515년(중종 10) 서울의 남부 樂善坊에서 태어났다.

그는 나면서부터 순수하고 아름다웠으며, 옷을 입을만 할 때부터 의젓함이 어른 같았다³²⁾. 어릴 때부터 총명 박학하여 문장을 짓는데 경술 방면에 더욱 造詣가 깊었다. 시에 뛰어난 재주를 보였는데 6세에 入學하여 때로 사람들이 듣고 놀랄 만한 시를 지었다.³³⁾

17세에 當世의 名儒인 李延慶(1484-1548)의 사위가 되어 그의 문하에서 배웠으며, 20세(중종 29)에 生員, 進士 양시에 합격하여 성균관에 들어가서 初, 會, 殿試에 모두 장원으로 급제하여, 성균관 典籍, 兵曹佐郎을 거쳤으며, 仁宗이 즉위하자 司諫院 正言이 되어 李芑를 탄핵하였다. 이후 仁宗이 8개월 만에 승하하고 明宗이 즉위하자 尹元衡과 李芑가 獄事를 일으켜 乙巳年(1545) 九月에 파직되었다. 이 시기는 李延慶, 李滉 등을 통해 학문적 역량을 키워나가던 때였으나 乙巳土禍에 연루되어 그만 좌절하고 만다. 33세(1547)에 順天으로 定配 되었다가 그해 9월에 珍

32) 盧守愼, 『蘇齋集』, 「行狀」, “生而粹美 自能勝衣 屹然如成人”

33) 盧守愼, 『蘇齋集』, 「行狀」, “此筆出於君 爲君能成文 未知何以報 他日登青雲.”

島로 移配되었다. 그곳에서 茅屋을 지어 蘇齋³⁴⁾라 號를 걸고 19년을 지내다가 52세(1565)에 槐山으로 移配되었다. 진도에서 19년 槐山에서 2년을 지내는 동안 經史를 연구하여 학문이 성숙되었고 다수의 문학작품이 나왔는데, 전 生涯에서 남긴 1,499首의 詩 중에서 1,023首가 이 流配期에 남긴 시이다. 이에 대해 李珣는 “수신은 귀양살이를 하면서 학문이 더욱 精하여졌고 때로는 시를 지었는데 忠君 愛親의 지극한 情에서 나온 것이 많았다”고 하였는데 유배 중에 학문의 뿌리가 더욱 屯실하여졌음을 알 수가 있다.

解配 後 領議政까지 오르는 입지적 성공을 거두고 宣祖의 각별한 寵臣으로 있다가 1590년에 鄭汝立을 천거한 과실로 劾職되어 그해 4월에 76세를 일기로 寓舍에서 死去하였다.

2) 盧守愼의 詩世界

盧守愼은 일생 동안 1,500여수에 달하는 다량의 시를 產出하였다. 오언율시가 758首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칠언율시 267首, 칠언절구 239首 순이다. 盧守愼의 시는 수학기, 유배기, 사신기로 뚜렷이 구분되는데 먼저 수학기의 시를 살펴보면 이 시기는 소재가 29세 되는 해에 장원으로 宦路에 들어서기 직전까지가 해당된다. 이 시기의 작품은 「己亥遊山錄」과 관련한 71首가 있는데 自然의 景觀을 노래하거나 感懷를 읊은 시로 대부분 敘景觀遊詩로 “老蒼하고 奇健함이 만년의 작품과 유사하다”고 평가되고 있다.³⁵⁾

34) 蘇齋 盧守愼의 호는 ‘蘇’와 ‘蘇’ 두 글자로 錯綜되어 쓰여 지고 있다. 『蘇齋集』, 「附錄」, 年譜에는 “營茅三間取一爲齋 輒扁曰蘇蓋本朱子 所謂我讀我書如病得蘇云爾”라 하여 ‘蘇’를 썼으며 후손들도 이를 고집하고 있다. 그러나 이후 鵝溪 李山海가 撰한 祖父 珣의 신도비나 朴承任이 撰한 부친 鴻의 신도비에도 ‘蘇’로 쓰고 있음을 볼 때 어느 것이건 무방하다 할 것이나 本稿는 일반적 사류를 좇아 ‘蘇’로 쓰기로 하였다.

35) 趙炯, 「蘇齋先生文集後序」, “其老蒼奇健奚謝晚年”

다음은 그의 나이 31세에 乙巳士禍로 파직되어 해배되기까지의 유배기이다. 이 때의 작품이 7할 정도로 謫居地인 충주, 순천, 진도, 괴산 등지에서 고독과 좌절, 침울한 심정이 그대로 투영되고 있다. 이 때의 시를 許穆은 소재의 「神道碑銘」에서 “선생의 산문은 海島 19年の 澤畔吟으로 楚나라의 屈原이 우울한 심정을 읊은 것과 같다”³⁶⁾고 하였으며 洪萬宗도 소재의 작품에 대해 “悽惋하고 沈鬱 悲壯하다”고 하였다.³⁷⁾ 이 시기는 불운한 시기임에도 창작이나 학문 연찬의 기회이기도 하였다. 이 시기의 작품이 소재의 내면세계를 가장 잘 나타내주고 있으므로 소재 문학의 실체를 이해하는 중요한 부분이다.

끝으로 仕宦期의 작품은 挽詞나 哀悼詩, 宴會나 모임을 주제로 한 시가 대부분이며, 下賜物을 받거나 임금의 命을 받고 그 감회를 읊은 시, 스님과 交驩한 시가 몇 首 있을 따름이다. 소재는 강서시파의 일원으로 黃庭堅과 陳師道를 범하였으며 나중 2천여회의 두보를 읽고 神韻을 얻어 唐詩를 개척한 후 두보의 조선적 재현이라는 찬사를 받고 있다. 소재 시의 특징 중 出仕前의 「遊山紀行詩」 다수에서도 唐詩風이 감지되는 것이 특이한 일이다. 唐詩風을 중심으로 한 그의 시를 살펴본다.

林開二水會	강물 만나는 곳에 수풀 열리고
天遠數峯尖	먼 하늘엔 뾰족한 봉우리 몇 개
古迹神龍去	신령스런 용이 가버린 옛 자취
幽期道士潛	숨은 도사가 비밀스런 약속을 가졌던 곳
黃精日中飫	낮에는 황정으로 배 채우고
白石夜來添	밤에는 백석으로 안주 했다네
擬逐桃花浪	복사꽃 실어 흐르는 물 쫓아가려 했는데
人心到底嫌	가는 곳마다 웃음거리 될까봐 걱정이라네. ³⁸⁾

36) 許穆, 「蘇齋先生神道碑銘」, “其有韻之文 海島十九年 澤畔吟也 正與屈左徒 牢愁幽思之同”

37) 洪萬宗, 『小華詩評』 下.

38) 盧守愼, 『蘇齋集』 卷1, 「道望火山」.

이 시는 1547년 忠州에서 순천 이배 길에 化山을 보고 읊은듯하다. 首聯은 먼 수풀 사이로 전개되는 강의 풍경과 그 사이에 보이는 뾰족한 몇 개의 봉오리를 보면서 시상을 열고 있다. 頷聯에서는 화산의 신령함 속에 자신의 처지도 있고 있다. 봄에 꽃이 핀 山水 주위의 경물과 그윽한 분위기에 걸맞게 옛날 神龍이나 道士들의 傳說스런 이야기로 시상이 변한다. 神龍과 도사를 對로 처리하였다. 頸聯에서는 백석도사가 낮에는 황정이라는 풀로 배를 채우고 밤에는 백석을 먹었다는 과장법의 표현으로 괴이함과 신비로움을 가증하여 시상을 고조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化山은 충주에 있는 도인들의 도량으로 생각했음직하다. 마지막 聯에서는 청운의 꿈을 안고 관직에 오른 지 3년도 못되어 충주에 안치되고 다시 순천으로 移配되어 떠나가는 신세를 한탄하고 있다. 복사꽃을 찾아 도원경을 꿈꾸어 왔으나 그렇지 못함을 아쉬워하고 있다. 창작 시기가 본격적으로 두보에 침잠되기 전의 작품임에도 두보의 기운을 느끼게 되는 작품이다.

二八初秋夜	16일 초가을 밤
三千弱水前	삼천 길 약수의 앞
昇平好樓閣	승평시절 좋은 누각위에
宇宙幾神仙	우주에는 신선이 몇이던가?
曲檻清風度	굽은 난간에 맑은 바람 지나가고
長空素月懸	넓은 하늘에는 하얀 달 걸려있네
焮然發大嘯	쉴쉴히 큰 휘파람 불제
孤鶴過翩翩	외로운 학이 그네처럼 지나가네. ³⁹⁾

이 시는 허균의 『國朝詩刪』의 찬사⁴⁰⁾와 함께 『大東詩選』에 수록된 걸작으로 통하며, 향리 尙州에서 順天으로 유배되던 1547년 7월16일 작품

39) 盧守愼, 『蘇齋集』, 「十六夜喚仙亭」.

40) 許筠, 『國朝詩刪』, “筆力凌勵宏, 故氣蓋一世”

이다. 이 시기는 아직 유배기간이었으나 인접에 金麟厚가 있었고 부사 宋麟壽의 환대가 있어 자주 주연이 있었던 터라 시 분위기가 慷慨의 정이나 悲憤을 찾기가 힘들다. 「十六夜喚仙亭」은 총 2首인데 그 중 1首이다. 首聯의 二八은 시간이며 三千은 긴 江을 의미하는 공간 개념이다. 弱水는 가는 털도 가라 앉는다는 전설적인 강이며 고요로움의 상징이다. 소재는 이후 적거 기간의 여러 시를 통하여 時間과 干支, 地名 등을 등장하여 신선한 미감을 주는 시를 쓰고 있는데 이수광은 이 표현기법을 俳優體라고 非評을 하고 있다.⁴¹⁾ 그러나 이 구절은 강서시풍의 작법이며 면서도 唐詩의 맑고 청량한 기운과 순정함을 느끼게 하고 있다. 頷聯은 누각 전경이 너무 좋아 신선이 노니는 듯한 분위기를 창출하고 있다. 上句의 昇平은 태평 세월의 시간적 심상을 의미하고 下句의 宇宙는 공간적 심상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聯과 聯의 연결은 두보의 시에서 감지되고 있다. 頷聯은 句法에서 제3字는 4字와 5字의 술어가 되어 어순이 도치되어 있는데, 명사와 명사 사이에 술어가 들어가는 경우가 杜甫시에서 자주 볼 수 있다. 頸聯은 맑은 미감을 느낄 수 있도록 ‘淸風度’와 ‘素月懸’으로 표현하였다. 鄭士龍도 「後臺夜坐」에서 “山木俱鳴風乍起, 江聲忽厲月孤懸”으로 유사한 표현을 하였는데 이와 같은 超脫의 미감은 강서시풍인 黃庭堅의 풍격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할 수 있다.⁴²⁾ 尾聯은 신선이 내려올 것 같은 풍정에서 회파람을 부니 한 마리 鶴이 그네를 타듯이 지나간다는 장부의 浩然한 기상을 드러내면서 마무리하고 있다.

義已如端木	義는 이미 端木과 같으니
恩何啻直卿	은혜가 어찌 直卿뿐이랴
頑甥辱教訓	어리석은 사위는 교훈을 욱되게 하고
順婦誤平生	순종하는 부인은 평생을 그르쳤네
薄命紅顏落	薄命하여 홍안이 시들어 가지만

41) 李睟光, 『芝峯類說』 卷九.

42) 吳台錫, 『黃庭堅詩研究』, 慶北大學校出版部, 1991. 吳台錫의 <黃庭堅 風格>에서는 ‘超脫의 뜻으로 超詣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心情白骨明 깊은 정은 백골이 되어도 분명하리라
 三從已無計 三從之道는 이미 꺾할 수 없으니
 死別莫吞聲 死別하여도 울음소리 삼키지 못하리.⁴³⁾

이 시는 戀婦之情을 표현한 시이다. 노수신은 17세(1531)에 스승인 灘叟 李延慶(1484-1548)의 여식 廣陵李氏와 혼인하였다. 이씨와의 결혼 60년은 기쁨보다는 비애가 더 많았다. 결혼한 지 14년이 되도록 後嗣가 없었는데다가 31세의 한창 나이에 22년의 긴 유배로 말미암아 別離의 아픔을 처절히 겪어야 했다. 존경하는 스승의 女息과 혼인까지 하였으니 師弟의 情은 더욱 돈독하였다. 부부의 정은 깊어갔으나 유배 죄인이 되어 스승을 욕되게 하고 또한 부인과 생이별을 한 기구함과 애절함을 詩로 형상화하였다. 그가 33세에 順天에서 장인과 부인을 생각하며 비통한 심정을 노래한 「夜坐泣書」 중 한수이다.

首聯에서 孔子와 子夏(名: 端木賜)의 나이가 31세 차이였음을 상기하며 스승인 李延慶과의 나이차가 31세임을 묘사하고 있다. 사제의 의를 표현한 것이다. 아울러 朱子와 그의 사위인 直卿의 관계를 떠올리며 장인에 대한 은혜를 감사하고 있다. 頷聯에서는 스승의 가이없는 사랑에 이를 지키지 못한 자신을 꾸짖고 있으며 순종하는 부인은 꽃다운 나이에 남편을 잘못 만나 평생을 그르쳤으니 함께 살 수 없는 비애를 대신 달래주고 있다. 그러나 薄命하여 흥안이 시들어 늙어가지만 소재의 깊고 넓은 정은 백골이 되어도 분명하리라는 부부의 애뜻함이 頸聯에서 오롯이 형상화되었다. 미련에서는 자식을 낳지 못해 三從之道 중 아들을 따르지 못한 안타까움을 대신 달래고 있으며 사별할 때는 가슴을 저미는 서러움을 목 놓아 울부짖어도 한을 풀지 못할 것임을 말하고 있다.

혼인한지 16년만에 死生을 기약하지 못하는 別離를 당하여 타의에 의하여 별거해야 하는 부인의 애절함을 묘사하고 있다. 유배자의 내일을 알 길이 없고 同穴에 묻힐 것이 어려우리라고 생각하는 夫情을 묘사하

43) 盧守愼, 『蘇齋集』 卷1, 「夜坐泣書三律」 中 1首.

였다. 이러한 괴로운 심사는 억제할 수 없는 눈물이 되어 비틀거리 써 내려 간 편지를 적시고 있으며, 편지를 들고 생과부가 된 부인의 의지조차 없는 처연한 모습이 연상되자 哀想에 잠겨 憐憫의 정을 토로하였다.

다행히 22년의 유배 생활을 마치고 歸鄉한 후로는 함께 天壽를 누리다가 76세 되는 해(1590) 3월 12일에 부인이 먼저 세상을 떠났다. 노수신 또한 한 달 후인 4월 7일에 세상을 떠나 하늘의 比翼鳥가 되었다. 이 때는 ‘鄭汝立 謀叛事件’에 연루되어 선조22년(1590) 파직된 몸이었는데 부인의 죽음으로 인한 충격은 老軀를 감당하지 못하고 마침내 운명한 것이다. 노수신 부부는 60년을 함께 하였으나 20년을 忍苦의 세월로 보냈다. 후사가 없어 동생 克愼의 둘째 아들을 양자로 입적시켜 뒤를 잇게 하였다. 동갑 나이로 같은 해 한 달 간격으로 타계 하였으니 비단 桎梏의 삶 속에서도 끝내는 후광을 享有한 보람이 있었고 하늘이 맺어준 天生の 연분이었다.

3) 盧守愼의 詩評

盧守愼의 문학은 朱子學에 학문적 기저를 갖춘 流配 前과 象山學을 수용한 그 이후로 차별된다. 유배기의 그의 시풍은 나흠순의 사상을 수용하여 ‘主氣論’과 ‘人心道心體用說’, ‘육망의 긍정’에 대하여 그의 논문인 「人心道心辨」과 「執中說」을 지어 그의 사상적 특징을 究明하였으며 그런 후에 그는 格을 과감히 파하고 人慾을 긍정한 자유분방한 江西詩風을 받아 들이고 그가 法했던 두보의 시풍을 자기의 현실 감각에 용해하여 나름의 시세계를 열고 있다.

그동안 소재 시에 대한 평가는 그의 詩風, 格律, 時代的 位相에 집중되어 조명되고 있다. 그의 시풍에 대하여 權應仁은 “소재 상국의 시는 杜詩를 오로지 학습하여 순정하고 노아하다”⁴⁴⁾라고 평하고 있으며, 梁慶遇는 “노소재의 오언율시는 杜法에 충실하여 一字一言이 모두 두보로부

44) 權應仁, 『松溪漫錄』 下, “蘇齋相國之詩 專學老杜 純正老雅.”

터 나왔다.”⁴⁵⁾고 하였다. 허균은 “소재의 해월에 벌레 소리 거치고 산바람에 이슬 기운 거두네.’의 구절은 少陵[杜甫]의 시권에서 구하더라도 많이 얻지 못한다.”⁴⁶⁾고 하였다. 또한 김창협은 “시의 노건하고 넓고 비장한 것은 깊이 두보의 격력을 얻은 것이니 후에 두보를 배운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다.”⁴⁷⁾라고 하였다. 이로 미루어 그의 시풍은 人慾을 시의 정서에 교감시켜 자유분방함을 추구하면서 두보의 시풍이 함께 어우러진 모습으로 투영되었다 할 것이다. 또한 소재의 격률에 대한 평가를 녹슬다 소재의 시가 대부분이 유배기의 작품이므로 소재에 대한 詩評도 流配 詩에 관한 것으로 보인다. 申欽은 『象村集』에서 “소재가 진도에 있을 때에 지은 시는 警絶한 것이 많아서 人口에 膾炙되었다”⁴⁸⁾고 하였으며, 眉叟 許穆은 「蘇齋先生神道碑銘」에서 “선생의 운문은 海島 19년의 澤畔吟으로, 바로 초나라 屈原이 우울한 심정을 읊은 것과 같다”고 하면서 谿谷이 “소재의 시는 기격이 웅발하다”⁴⁹⁾고 한 말을 인용하여 시의 내면적 정서를 정의하였다. 홍만중은 『小華詩評』에서 “과회의 「寄尹李詩」는 ‘저문 날에 숲 속 까마귀 피를 토하도록 울고, 추운 날 모래엔 기러기 그림자 짝이 없구나.’라는 구절은 일찍이 그 悽惋함을 탄식하지 않음이 없다”⁵⁰⁾고 평하였다. 유배기의 아픔과 고뇌를 학문 탐구로 극복한 소재의 시는 얇은 재주로 공고롭게 써서 잠깐 동안 흥을 돋우는 정도를 벗어나 洪鐘이 울리는 듯 한 굳세고 힘찬 경지를 이룬 것이라는 평가다.

45) 梁慶遇, 『霽湖詩話』, “盧蘇齋五言律 酷愛杜法 一字一言皆從杜出.”

46) 許筠, 『惺叟詩話』, “蘇齋海月蟲音盡 山風露氣收之句 求之於少陵卷中 亦不可多得.”

47) 金昌協, 『農巖集』, 「雜識」, “其浸鬱老健莽宕悲壯 深得老杜格力 後來學杜者莫能及”

48) 申欽, 『象村集』(景文社), 「晴窓軟談」, p.224, “其在海島所作詩 多警絶 膾炙人口.”

49) 許穆, 「蘇齋先生神道碑銘」, “其有韻之文 海島19年澤畔吟也 正與屈左徒牽愁幽思之同致 溪谷有言 蘇之氣格 雄拔.”

50) 洪萬宗, 『小華詩評』, “寡悔之寄尹李詩 ‘暮日林鳥啼有血 天寒沙雁影無隣’ 未嘗不歎其悽惋.”

반면 李晔光은 『芝峯類說』에서 “한때 세상에서 칭송할 뿐 아니라 입에 올리기를 그치지 않았다. 그러나 구어가 優體를 면치 못하였으니 詩를 쉽게 말할 수 있겠는가?”⁵¹⁾라고 하였고, 李瀼은 『星湖僊說』의 「詩文門」에서 “소재의 시는 俚語가 많이 섞여서 사람들이 그 雅하지 못함을 흠으로 여기고 있지만 근량이 심히 무거워서 마치 열석 무게의 활을 당기는 것처럼 활시위에 걸 때부터 관솔에 이르기까지 털 끝 만큼이라도 그 힘을 게을리 할 수 없는 것과 같아 이른바 공중을 가로질러 억센 말이 서리었으니 어찌 標題의 힘을 막겠는가?”⁵²⁾라고 하여 典雅하지 못한 부분과 억세고 힘찬 경지를 함께 비교 평가하고 있다. 시인의 풍모에 대한 평가에서 柳夢寅은 『於野談』에서 “소재 노수신은 진도에 19년간 유배 갔다 …… 책은 읽지 않은 것이 없었는데 論語와 杜詩에 치우쳐 이천 회에 이르렀다”⁵³⁾고 하였다. 소재 자신도 無所不讀의 왕성한 독서 중에서도 論語와 杜詩에 치중하여 “我之詩文 最於論語中得力”이라고 自評하고 있다. 이렇듯 지나긴 유배 생활을 통하여 굳세고 힘차며 무게가 있는 시가 창작되었다는 評을 듣고 있다.

다음은 解配 후의 소재에 대한 評을 살펴본다. 남용익은 中宗時부터 宣祖時까지 뛰어난 시인으로 ‘湖蘇芝’를 꼽고 그들은 모두 조선전기 官人文學을 최고의 수준으로 올려놓음으로써 “館閣三傑로 칭송 되었다”⁵⁴⁾고 하였다.

南容翼은 『壺谷詩話』의 시평에서 “내가 사건으로 망령되어 高麗와 朝鮮의 시를 論할진대 鄭湖陰 士龍은 ‘鍊悍’하고, 盧蘇齋 守愼은 ‘淵宏’하며, 黃芝川 廷彥은 ‘典特’하다.”⁵⁵⁾고 하였다. 洪萬宗도 “세인들이 근대 명

51) 李晔光, 『芝峯類說』, “一時稱誦 不啻膾炙 而句語未免優體 詩可易言哉.”

52) 李瀼, 『星湖僊說』, 「詩文門」, “蘇齋之詩 多雜俚言 人謙不雅 然斤兩甚重 如挽十石弓 自始 鉤鉉 至殼率 毫髮不可怠其力 所爲 橫空盤硬語 妥帖力排.”

53) 柳夢寅, 『於野談』 卷上, p.26.

54) 南龍翼, 『壺谷詩話』, “評者謂 鄭湖陰 盧蘇齋 黃芝川 館閣三傑.”

55) 南容翼, 『壺谷詩話』, p.387, “余以聽見 忘論勝國與本朝之詩曰 鄭湖陰 士龍之鍊悍, 盧蘇 齋守愼之淵宏, 黃芝川 廷彥之典特.”

가를 칭함에 반드시 ‘湖蘇芝’를 말한다. 湖陰은 ‘組織精緻’하고, 蘇齋는 ‘雄拔富瞻’하며, 芝川은 ‘橫逸奇偉’하니 참으로 가히 相角한다.”⁵⁶⁾고 말하였다. 이로 미루어 ‘湖蘇芝’는 당시의 시문학에서 이들을 빼놓을 수가 없으며 그 중 소재의 시는 ‘淵宏’ ‘雄拔’하다는 평이 두드러지며 農巖 金昌協은 ‘호소지’ 중에서 소재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

노소재의 시는 宣祖初에 가장 뛰어났으니 무게 있고 함축적이며 노련하고 힘이 있으며 드높고 비장한 것이 두보의 풍격을 깊이 터득하였다. 그 뒤에 두보를 배우는 이들 중 세상에서는 그를 따를 자가 없었으니 그는 공력을 들인 끝에 우화 속에서 터득한 것이 많았던 것이다. 그러나 이 노인은 19년 동안 섬에서 오직 「夙興夜寐箴解」만 지었으면서도 그 의리를 그다지 받아들이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훗날 나왔을 때에는 기개와 절조가 태반은 사그라졌지만 다만 두보의 시를 배운 것만이 이처럼 좋았던 것이다. 세상에는 ‘湖蘇芝’라고 말하지만 세 분의 시는 실로 같지 않다. 湖陰의 組織 鍛鍊한 것은 西崑體와 비슷하나, 풍격은 蘇齋만 못하고 芝川은 힘차고 기발한 것이 황정견, 진사도에게서 나왔으나 활달함이 소재만 못하니 소재가 가장 낫다고 할 것이다.⁵⁷⁾

이처럼 ‘호소지’를 상호 비교하면서 노수신의 시풍이 가장 낫다고 평하고 있다.

金萬重은 『西浦漫筆』에서 “소재가 스스로 말하기를 七律은 湖陰만 못하나 五律은 낫다고 하였으니 이 말은 심히 옳다.”⁵⁸⁾고 하였다. 이에 대

56) 洪萬宗, 『小華詩評』, p.792, “世稱近代名家 必曰 湖蘇芝 湖之組織精緻 蘇之雄拔富瞻 芝之橫逸奇偉 眞可相角.”

57) 金昌協, 『農巖集』, 「雜識」外, 34章, “盧蘇齋詩 在宣廟初 最爲傑然 其沈鬱老健 莽宕悲壯 深得老杜格力 後來學杜者莫能及 蓋其功力深至 得於憂患者爲多 余謂此老十九年在海中只做得夙興 夜寐箴解 而亦未甚受用 後日出來 氣節太半消沮 獨學得杜詩如此好耳.” 世稱湖蘇芝 然三家詩實不同 湖陰 組織鍛鍊 頗似西崑 而風格不如蘇 芝川 矯健奇崛 出自黃陳 而宏放 不及蘇 蘇齋其最優乎.”

58) 金萬重, 『西浦漫筆』, p.622, “蘇齋自謂 七律不如湖陰 而五律勝之 此言甚公.”; 梁慶遇, 『霽湖詩話』, “蘇齋曰我與湖陰 詩名相埒 世不能辨其優劣 僕之長律不及湖陰 湖陰短律 不及於僕各有長處耳.”

해 정사룡은 “그대의 여러 體가 어찌 나의 一律을 당하리.”⁵⁹⁾라고 응수하였는데 스스로 詩의 자부심이 대단함을 알 수 있다. 이는 호음의 당당함에 비겨 소재의 오율이 뛰어나다는 의미일 것이다.

3. 芝川 黃廷彧

1) 生涯

황정욱은 호가 芝川이고 長水가 본관이다. 南原에서 대대로 살았고 黃喜의 4세손으로 부친은 영의정에 추증된 黃悅이다. 정사룡, 노수신과 더불어 ‘湖蘇芝’로 칭함 받았고 ‘館閣三傑’로 추앙된다. 위 두 사람의 역정은 여러 부침 속에서도 인생 후반이 영화가 있었고 그들의 遺稿가 잘 보존되고 정리된 반면 황정욱은 壬亂의 격동기에 모함에 빠져 만년에 파직되고 신원되지 못한 채 1607년에 죽었으며 그의 死後 아들 黃赫이 역모에 걸려 가문이 절단되는 禍를 입었고 그의 가계가 다시 伸冤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렸다. 그의 文集도 籍沒時에 함께 압수되었다가 천신만고로 회수되어 약 200여首 밖에 전해지지 않는다. 『芝川集』은 인조 10년에 외손 李厚源에 의하여 목판본으로 간행되었다.⁶⁰⁾ 그의 행적은 『芝川集』, 「序文」에서 뚜렷하게 살필 수가 있다.⁶¹⁾

59) 許筠, 『惺叟詩話』, “湖陰曰 ‘渠之衆體 安敢當吾一律乎 其自重如此’”

60) 『芝川集』은 1632년(仁祖 10) 외손인 李厚源에 의하여 간행되었다. 책머리에 張維의 「序文」이 있다. 卷1에 五言絶句 6首, 七言絶句 75首, 五言律詩 28首, 卷2에 七言律詩 84首, 七言排律 1首, 卷3에 敎書 1首, 書契 1首, 書 3首, 筭子 1首, 疏 2首, 箋 5首, 卷4에 序 1首, 記 2首, 銘 1首, 跋 2首, 哀辭 2首, 祭文 5首, 墓碣銘 4首, 墓誌銘 2首 등이 수록되어 있다. 『芝川集』의 「附錄」으로 上에는 「行狀」, 尹根壽가 지은 「壽序」와 「耆英社稷軸詩序」, 그리고 次韻詩 4수가 있다. 下에는 祭文 4首, 輓詩 20首, 伸冤疏 1首, 禁府回啓 1首, 大臣議 1首, 改題主祝文 1首 등이 있다. 『芝川集』 卷3의 「書契」는 1591년 도요토미(豊臣秀吉)의 서신에 대하여 의리로써 힐책하여 보낸 글이다.

61) 張維, 『芝川集』, 「序文」.

2) 芝川の 詩世界

黃廷彥의 시는 그의 生涯에 따라 크게 세 계열로 나누어진다.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前까지의 작품과, 吉州에 유배된 시절의 작품, 그리고 解配 후 서울로 입성하지 못하고 노량진 일대를 떠돌던 시기로 대별되는데 작품 유형은 정치적 좌절을 겪은 벗에게 詩를 주면서 자신의 불행을 깃들이고 있는 贈別詩와 유배지의 기괴한 景物 속에 자신의 울분을 토해내는 景物詩로 대별된다.

다음 작품은 春川府使로 떠나는 沈忠謙에게 준 송별시이다.

標渺春城水一隅	춘천 성 모퉁이 물은 아스라이 펼쳐지고
江山樓觀眞文魁	강산의 누대는 진정 문장의 으뜸이라
玉堂步履星辰遠	옥당의 걸음 거리는 북극성과 멀어지고
碧落神仙笙鶴來	푸른 하늘 신선되니 피리와 학이 내려오네
模寫風烟幾幾句	좋은 풍정 그려내니 몇 구절이 되리요?
鍊成丹藥化三胎	단약을 만들어 태를 세 번 바꾸리라
平生睡足頭今白	평생에 잠이 족하여 흰머리 되었는데
坐數交蓁歲六回	앉아 헤아리니 사귄지 여섯 해세. ⁶²⁾

이 작품은 芝川の 대표작이며 『國朝詩刪』에 수록되어 있고 김만중은 『西浦漫筆』에서 七言律詩의 대표작으로 꼽고 있다. 沈公直의 이름은 忠謙(1545-1594)으로 春川府使로 부임하는 그에게 환송시를 贈한 것이다. 起聯에서는 춘천으로 향하는 淸平의 산색과 그 길 따라 흐르는 소양강 물이 대비되며 결국 한강과 통한다고 하였으니 善政 후 한양으로 돌아 오기를 바란다는 德談이다. 首聯은 춘천의 경치를 묘사하여 봄이 찾아 온 城 모퉁이로 안개에 비친 물줄기와 강과 산에 있는 樓臺가 절경이어서 이 風光 속에 뛰어난 문장이 만들어진다는 뜻을 담았다. 頷聯은 이제

62) 黃廷彥, 『芝川集』, 「送沈公直赴春川」 二首, p.50.

심층겸이 비단 玉堂을 떠나 임금과 멀어져 있지만 仙境인 춘천에 있게 되면 피리와 학과 더불어 신선처럼 살게 된다는 의미이며 頸聯은 이제 그곳에 살면서 좋은 경치를 시로 담아내 신선의 경지에 이를 것이라는 뜻이다. 丹藥은 杜甫 시 「贈李白」의 “未就丹砂愧葛洪”의 고사를 인용하였으며 尾聯은 蘇軾의 ‘平生睡足連江雨, 盡日舟橫擘岸風’에서 의경을 취하였다. 좋은 벼슬에 나가지 못함을 위로하면서 벌써 사권지 六年이 되었음을 상기시키고 있다.

慕老先生百代師	연로하신 모재선생 백대의 스승이라
我從門下覓歸岐	나도 문 앞 찾아뵈고 돌아갈 길 여쭈었지
關門紫氣青牛去	함곡관 문 붉은 기운 청우 타고 떠나셨고
弟子女經白首知	제자들은 태현경을 백발 되어 알게 됐네
亂世孤蹤還到此	이 난세에 외론밭길 돌아 여기 왔네마는
舊徒今日若前期	옛 제자들 오늘에야 예전 기약했던 듯이
相逢共說當時事	서로 만나 당시의 일 함께 얘기 나누려니
十二高樓夜雨悲	열두 난간 높은 누각 밤비가 서글프네. ⁶³⁾

芝川은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號召使가 되어 순화군을 배종하고 아들 赫과 같이 江原, 咸慶 등지로 피난을 하다가 會寧에서 국경인의 배반으로 포로가 되어 安邊에 갇히게 되었다. 풀려 돌아왔으나 6월에 下獄 되고 8월에는 吉州에 유배가 되었다. 이 때 지은 詩의 「序文」에 당시의 상황과 심경이 잘 묘사되어 있다.⁶⁴⁾ 허균이 『國朝詩刪』에서 찬사한 작품이다.⁶⁵⁾ 정치적 비애와 좌절로 뜻을 잃어버리고 울분을 토했던 晚唐의

63) 黃廷彧, 『芝川集』, 「贈朴僉知士豪」(并序).

64) “壬辰之亂 余罹千萬不測之禍 及被遣來配吉州 州老朴僉知士豪時來相見 一日自言少時 往從慕齋先生之驪興村舍 仍受學於同門金訓導器氏. 且誦先生之詩與語甚悉 噫 余又少從金訓導 竊聞先生之風而興起焉者 其時先生入朝以歿 雖未及面承緒論 而實與親炙者無異也 豈自意干伐亂離之餘 得見同門之侯韞於絕塞之外哉 感念存歿 聊書此以贈”

65) 許筠, 『國朝詩刪』, “結亦超然”, “三四神對”

시풍을 엿볼 수 있다.

首聯은 모재 김안국 선생의 덕망을 추송하면서 연로하신 모재 선생은 百代의 스승으로 나도 그 문하에 들어가 찾아가 뵈고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하여 여쭙었음을 상기한다. ‘覓歸岐’는 제자가 스승에게 자기의 나아갈 길을 묻는 것이다. 頷聯은 모재를 노자에 비유하고 函谷關의 紫氣가 동에서 서쪽으로 오고 있음을 보고 노자가 靑牛를 타고 왔다는 전설을 慕齋에 대입한 것이다. 두보의 시 「秋興」에 “東來紫氣滿函關”⁶⁶⁾의 시구가 보이는데 紫氣는 瑞氣를 의미하며 函谷關은 神仙이 머무는 곳으로 내적 의미는 스승은 이미 돌아가셨다는 것이다. 慕齋의 학식을 한나라 揚雄에 대비시키고 제자는 양웅의 제자인 侯鬻를 말한다. 揚雄은 字를 子雲이라 하며, 成帝 때 궁정 문인의 한 사람이 되었다. 학자로서 각 지방의 언어를 집성한 『方言』과 『易經』에 기본을 둔 術家書인 『太玄經』과 『論語』의 문체를 모방한 수상록 『法言』 등을 저술하였다. 王莽이 정권을 찬탈한 뒤 새 정권을 찬미하는 문장을 썼고 酈曷정권에 협조하였기 때문에 지조가 없는 사람으로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그의 식견만은 漢나라를 대표하였다. 후파는 양웅과 함께 거처하면서 스승의 학술을 배우고 양웅 死後에는 삼년상을 입었다. 慕齋의 행적은 학자의 충심으로 큰 흠결 없이 살았음에 비추어 不事二君의 정신을 저버린 양웅과의 대비는 적절한 표현이 아니다. 頸聯은 난세를 만나 변방 吉州 땅에서 약속하지도 않았지만 우연히 만나게 된 제자들의 기막힌 인연이 묘사되고 있다. 尾聯은 열두 欄干 높은 다락에서 서로 이야기하는 중에 밤비가 내려 자신들의 운명에 대한 회한과 맞물려 처연한 풍경을 자아내고 있다.

본 詩는 江西詩의 창작기법으로 만들어졌는데 詩語를 나열하는데 慕齋, 函谷關, 靑牛, 太玄經 등 典故를 많이 사용하여 難澁한 맛이 나며 慕

66) 杜甫, 「秋興」, “蓬萊古闕對南山 承露金莖宵漢間 西望瑤池降王母 東來紫氣滿函關”

齋를 仙人 노자에 대비한 의도는 좋으나 양웅과 후파와의 사제 관계를 덧보이게 하다 보니 오히려 양웅과 모재와의 인격적 非對稱과 모재의 여러 俊書⁶⁷⁾들을 術家書인 太玄經에 비유하는 무리한 표현을 한 것이다.

世間榮辱儘悠悠 세상사 영욕이야 모두 다 아득커늘
 何處藏身可自由 어느 곳 몸 숨긴들 자유롭다 할 수 있나
 只合任他牛馬我 우마처럼 날 부려도 맡겨둬이 마땅하리
 蒼空來往白雲浮 푸른 하늘에 흰 구름처럼 떠서 오가리니.⁶⁸⁾

察訪으로 가는 鄭泗라는 자에게 贈한 시이다. 세상사 영욕이 끝이 없으니 어디에 머무른다 하더라도 자유롭게 살 수 있겠느냐고 자조한다. 그러나 牛馬 같이 부리더라도 하늘에 떠도는 흰 구름같이 살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위로를 전하고 있다.

찰방이라는 낮은 직위의 외직으로 나가는 정서를 위로하는 내용이지만 사실은 자기의 처지와 울분을 정찰방에 대입시키고 있는 것이다. 尾聯의 흰 구름은 實景이 아니라 자유롭게 떠돌면서 속박받지 않고 살아가는 위로의 말이다. 의경을 잘 안배하여 기구에서는 정서의 재능의 뛰어난을, 승구에서는 재주에 걸맞게 좌천되는 모습을, 전구에서는 세상의 불공정한 이치를, 결구에서는 무탈과 위로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황정옥 시의 의경에 대한 안배는 贈別詩에서 자주 나타나는데 ‘호소지’ 등의 특징이기도하다.

본래 당시는 ‘先景後情’을 원칙으로 삼는데 이를 무시하고 ‘先情後景’의 의경을 구사하고 있어 唐詩의 전형과는 사뭇 다른 구사법이지만 그의 論理整然한 작법만은 일품이다. 황정옥은 杜甫의 시를 모범으로 하

67) 慕齋는 1517년 慶尙道 觀察使로 있을 때 각 鄉校에 『小學』을 가르치고, 『二倫行實圖諺解』, 『正俗諺解』 등의 教化書를 간행·보급했으며, 鄉約을 시행하도록 하여 朱子學의 향촌질서의 수립에 힘썼다. 그 밖에도 『農書諺解』·『蠶書諺解』 등의 農書와 『辟瘟方』·『瘡疹方』 등의 醫書도 간행했다.

68) 黃廷彧, 『芝川集』, 「送鄭察訪泗」.

면서 스스로 문호를 세웠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⁶⁹⁾ 윤근수의 제문에서도 그 시가 두보의 경지를 엿보고 있다고 적고 있다.⁷⁰⁾

3) 芝川の 詩評

허균은 『惺叟詩話』에서 소재 노수신의 五言律과 지천 황정옥의 七言律을 절조로 평했다. 다음은 『惺叟詩話』에서 평한 허균의 시평이다.

나는 젊은 날 芝川翁을 뵈게 되었는데 그 지론이 거만하여 고금의 문예를 이야기함에 許與하는 바가 적었고 우리나라의 시에 이르러서는 더욱 列에 넣어 논란하지 않았다. 이를테면 容齋 같은 이를 너무 기름지다 지목하고 李荇은 모의했다 지적하니 그 아래는 대개 알만하다. 오직 訥齋 朴祥만은 존봉하여 미칠 수 없다 하였고 湖陰과 蘇齋는 조금 작가에 합한다 하였다. 나는 듣고 마음으로 놀랐으며 드넓어 河漢을 본 듯하였다. 그 깊이와 기를 헤아릴 수가 없었다. 그러나 나 혼자 속으로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는데 공이 沒한 뒤 남긴 글을 개관하지 못하여 늘 한을 두었었고 그 지은바가 과연 논한 바와 들어맞는지 아닌지 의심했었다. 그런데 나의 벗 趙持世가 그 近體 律詩 100편을 모았으므로 나는 비로소 눈에 접하게 되었는데 그 긍지와 鬻심과 兪승 깊고 드넓음은 바로 천년 아래 동떨어진 울림이었다. 그 변화한 바를 고려했다면 대개 訥齋에서 나왔고 盧守愼과 鄭士龍의 사이를 넘나들어 그의 그 물결을 같이하나 더욱 뛰어난 것이었다.⁷¹⁾ (後略)

69) 黃廷彧, 『芝川集』, 「附錄」上, 「行狀」, “文章詩規老杜 而自立門戶. 尤以警拔神解爲主 如有水落而石出 源委極其深長 爲文 本諸六經 而出入諸書. 骨氣雄峻 其軸自別 不爲蹈襲故常”

70) 黃廷彧, 『芝川集』, 「祭文」, “旁及文章 亦幟詞垣 詩規老杜 卓然自樹 力振弱調 雅健爲主”

71) 許筠, 『惺所覆頤稿』 卷5, 文部 2, 「黃芝川詩卷序」, “蓋余少日及見芝川翁 其持論甚倨 談古今文藝 少所許而至我國詩則尤不齒論 如容齋而目爲太腴 李達而指爲模擬 基下概可知矣 唯推朴訥齋 祥 爲不可及而湖陰 蘇齋稍合作家 余聞而心駭 浩如睇河漢 不可測其甚涯也 然私竊記之 公歿遺文不可概見 每置恨也 而疑其所術果合於所論 余友趙持世 募其近律百餘篇 余始寓日 卽其矜持勁悍 森邃沈寥 寔千年以來絕響 覈所變化蓋出於訥齋 而出入乎盧 鄭之間 殆同其派而尤傑然者…”

李珣는 황정옥의 문학을 중히 여겨 국조 이래의 시인을 평하면서 “황정옥의 시는 經學에 근원을 두고 거둬 의리를 스스로 터득한 문장이니 마땅히 점필재와 더불어 견줄 만하다. 나머지 사람은 미치지 못한다.”⁷²⁾라고 하였다.

허균은 『惺叟詩話』에서 “소재 노수신과 지천 황정옥은 근대의 대가인데, 모두 근체시에 뛰어났다. 노수신의 오언율시와 황정옥의 칠언율시는 모두 천년 이래의 뛰어난 가락이다.”⁷³⁾라고 황정옥의 칠언율시를 높이 평가하였다. 황정옥은 두보의 시를 모범으로 하면서 스스로 문호를 세웠다는 평을 받고 있으며⁷⁴⁾ 尹根壽의 제문에서도 그 시가 두보의 경지를 엿보았다⁷⁵⁾고 한 바 있다.

『宣祖實錄』 또한 그가 晚唐의 작풍을 구사하고 있다고 하였으며 正祖가 이르기를 “지천 황정옥의 시는 호음 정사룡, 소재 노수신과 함께 유명하다. 세상에 전하는 近體詩는 수백편이 못되는데 기묘하고 뛰어나 이따금 사람을 놀라게 하는 말이 있다.”⁷⁶⁾ 文은 더욱 적다. 하지만 都堂의 글에서 필력을 볼 수 있다. 谿谷 張維가 「序文」에서 한 점의 고기로 온 술 안의 맛을 알 수 있다 하였는데 맞는 말이다”라고 하였다.

4. 三唐派 詩人

본고에서 三唐詩人에 대하여 언급 한 것은 그들이 조선 중기 한시문

72) 李肯翊, 『燃藜室記述』 卷18, 「宣祖朝故事本末」.

73) 許筠, 『惺叟詩話』, “盧蘇齋, 黃芝川, 俱工近體, 盧之五律 黃之七律, 俱千年以來絕調.”

74) 黃廷彧, 『芝川集』, 「附錄」 上, 「行狀」, “文章詩規老杜, 而自立門戶, 尤以警拔, 神解爲主, 如有水落而石出, 源委極其深長. 爲文 本諸六經, 而出入諸書, 骨氣雄峻, 其軸自別, 不爲踏襲故常.”

75) 尹根壽, 「祭文」, “旁及文章, 亦幟詞垣, 詩規老杜, 卓然自樹, 力振弱調, 雅健爲主”

76) 正祖, 『弘齋全書』 卷161, 「日得錄」, 「文學」, “芝川詩與湖陰蘇齋齊名 近體之行于世者, 未滿數百”

학에 끼친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이다. 삼당시인들은 ‘湖蘇芝’라 일컬어지는 ‘館閣三傑’인, 정사룡·노수신·황정욱 등이 송시문학으로부터 唐詩의 시원을 개척하여 조선 문단에 뿌리 내리려 할 즈음에 唐詩를 완창시킨 장본인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비록 시대적 상황으로 그동안 수백년을 지배해 온 宋詩의 바탕을 허물지 못하고 척박한 환경에서도 그들이 처한 불운을 시로 승화시켜 비단 盛唐의 경지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그들만의 풍격을 이루었다고 본다.

中宗朝를 전후해 李胄와 金淨에 의하여 떠오르던 학당의 불길이 뜻밖의 사회로 좌절되어 기세가 꺾였으나 朴祥을 중심한 호남시인들이 다시 이를 선도하였는데 16세기 호남 사림의 학맥을 정리하면, 당풍을 선도한 인물로 朴祥 - 林億齡 - 朴淳, 楊應鼎·李後白 - 白光勳, 崔慶昌, 李達, 鄭澈로 이어지며, 활동무대는 光州를 중심으로 羅州, 長城, 昌平, 潭陽, 海南, 長興, 靈巖 등으로 조광조의 학풍에 동조하는 士林들이 주류였다. 신희은 『晴窓軟談』에서 “사암은 사람됨이 清水高節하고 당풍을 배워 삼당시인의 출현을 선도했으며 힘써 唐詩의 경지를 추구하였고 뒷날의 白玉峯·崔慶昌·李達의 유파는 다 사암의 제창에서 시작되었다”⁷⁷⁾고 하였다.

三唐이라는 용어가 사용된 것은 任相元(1638-1697)의 「蓀谷集序」에서 부터였다.

穆宗代에 『三唐集』이라는 것이 있었다. 그 세 사람은 고죽 최경창, 옥봉 백광훈, 손곡 이달이다. 이 세 사람은 唐을 모방해 가끔 아주 닮은 것이 있어서 문득 읽어보니 곱고 아름다운 것은 사랑할만 했고 唐人의 정수를 뽑은 것 같았다.⁷⁸⁾

라고 유래를 밝히고 있음을 볼 때 宣祖朝에서부터 崔·白·李 三人의

77) 朴淳, 『思菴集』, 「李選의 年譜」, “清邵淡潔, 詩尤驚發, 力進李唐, 後來崔慶昌 白光勳 李達之流, 其源皆自公所倡始”

78) 任相元, 「蓀谷集序」.

습간 시집인 『三唐集』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수광은 『芝峯類說』에서 최경창과 이달은 한 때 시 잘하는 사람으로 그들의 시가 가장 唐詩에 가깝다⁷⁹⁾고 하였고 홍만중은 『小華詩評』에서 백광훈의 시를 淸婉⁸⁰⁾으로 평가하였다. 허균은 『鶴山樵談』에서 최경창의 시에 대해 “이분의 절구는 편편마다 맑고도 간절하여 唐나라 때에 내놓아도 王昌齡 등 여러 공들에게 양보할 것이 없다”⁸¹⁾라고 하였다. 남용익은 『壺谷詩話』에서 “고죽 최경창은 淸淑하고, 옥봉 백광훈은 瘦朗하며, 손곡 이달은 孤絶하다”⁸²⁾라고 하였다. 이어서 “고죽은 절구에 능하고, 옥봉은 읊시에 능하며, 손곡은 읊절이 모두 낫다”하여 손곡의 우위를 밝혔다.

허균은 「蓀谷集序」에서 이달의 시를 艷, 和, 淸, 響亮 등 다양한 풍격이 있는 것으로 설명하였으며, “이 시는 李白에게서 근원을 두었고 왕유와 유장경의 경지를 넘나들었다.”라고 하였으며 “분위기는 온화하면서 흥취는 거침 없고 시의 발상은 화려하면서 시어는 담박하다”⁸³⁾고 평하였다. 또 『蓀谷山人傳』에서 ‘淸新雅麗’라고 하여 李達 시의 唐風的 성취를 평가하였다. 당시 三唐의 興起는 내외적 조건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각기 다른 특징들과 함께 정서를 시의 전면에 드러내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허균은 삼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다.

崔·白·李 세 사람은 모두 다 정음을 본받았다. 최의 맑고도 굳센, 백의 마르고 맑음이다. 다 귀중하나 이는 넉넉하고 아름다워 다른 두 사람에 비해 범위가 자못 크긴 하나, 孟郊와 賈島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했다. 崔·白은 일찍 죽었고 李는 만년에 문장이 크게 나아져 스스로 일가를 이루었고, 그 기려한 것

79) 李睟光, 『芝峯類說』 卷9, 「文章部」 二, “崔慶昌 李達 一時能詩也 其詩最近唐.”

80) 洪萬宗, 『小華詩評』, “白玉峰之淸婉”

81) 許筠, 『鶴山樵談』, “此君絕句 篇篇皆淸切, 置之 世無讓少伯諸公.”

82) 南龍翼, 『壺谷詩話』, “崔孤竹之 淸淑, 白玉峯之瘦朗, 李蓀谷之孤絶”

83) 許筠, 「蓀谷集序」, “其艷也, 若南威西子, 袿服而明粧. 其和也, 若陽春被百卉. 基淸也, 若霜流之洗巨壑 其響亮也, 若九霄笙鶴, 彷彿乎五雲之表.”; “氣溫趣逸, 芒麗語澹”

을 버리고 평실한데로 돌아갔다.⁸⁴⁾

‘湖蘇芝’와 삼당파의 師承 관계와 학당 전수에 대한 기록은 제한적으로만 보이고 있다. 李達은 湖陰으로부터 杜·蘇를 배웠는데 손곡이 정사룡에게 배운 것은 館閣文學의 연장 선상에서 이루어진 문학적 수업으로 추측되며, 蓀谷에게 미친 學詩 경향은 “실제로 소식과 황정견의 시가 폐부에 들러붙은 지 오래되어 조어에 盛唐의 기격이 없다”고 하여 자신의 송풍적 시풍의 폐해를 실토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로 미루어 호음은 손곡에게 蘇·黃의 전수자였으며 오히려 훗날 唐詩로의 전환은 思庵 朴淳을 통하여 그 계기를 맞게 된다.⁸⁵⁾

백광훈은 소재 노수신과는 각별한 사제의 연이 있다. 노수신은 진도 유배기간 백광훈의 수차례에 걸친 방문과 서신을 통한 詩緣과 師弟의 연을 맺은바 있다. 白衣의 신분인 백광훈은 운신이 다소 자유로워 수차례 유배지를 방문하였으며 훗날 소재가 해배되어 관직에 있을 때 제술관으로 활동하기도 하였다.⁸⁶⁾

최경창과 ‘湖蘇芝’와의 사승관계는 엿볼 수 없다. 다만 고죽은 소재의 謫居地를 수차 방문하였으며, 詩緣과 學唐에 대한 영향을 받았음을 스스로 평한 소재시평에서 확인할 수가 있다.⁸⁷⁾ 李達 또한 비단 원주에 적을 두고 있었지만 친한 벗인 옥봉이 해남에 있고 최경창은 영광군수를

84) 許筠, 『許筠全集』, 『鶴山樵談』, p.345, “崔白李三人 皆法正音 崔之清勁 白之枯淡 皆可貴重 然氣力不逮 稍失事厚 李則豐艷 比李氏家數頗大 皆不出郊島之藩籬 崔白早世 李晚年文章大進 者成一家 斂其綺麗 歸於平實.”

85) 許筠, 『許筠全集』, 「蓀谷山人傳」, pp.100-101, “一日 思庵相 謂達曰 詩道當以唐爲正 子瞻雖豪放 已落第二義也 遂抽梁上太白 樂府歌吟 王孟近體以示之 達 然正法之在是 遂盡損故學 歸舊所隱蓀谷之庄…”

86) 『蘇齋集』에는 백광훈에게 贈한 5篇의 시가 있을 정도로 깊은 인연을 확인할 수 있다.

87) “崔孤竹輩嘗曰: 我國地名, 不及中原故作詩不得使地名, 每以爲限. 及見蘇齋詩. 有 ‘路盡平邱驛, 江深判事亭’ 上下句, 皆使俚語, 而句法穩著, 及知大家手者異於他人也”

지내며 湖南歌壇의 임재, 정철 등이 전라도에 있음을 이유로 蘇齋의 진도 謫居를 찾기가 다소 용이했으리라 본다.

李達은 비록 출신과 출생지의 연유로 소년시절에는 師承의 연을 갖지 못하였으나 당시 학문적으로나 시문에서 唐詩의 고수였던 소재를 찾게 되었고 소재 또한 비범함과 인간적으로 고뇌에 얽힌 그와의 정신적 교합이 어우러져 나이를 초월한 詩友 관계를 맺게 된다.⁸⁸⁾

허균은 『惺所詩話』에서 소재가 僧軸에 있는 손곡과 고죽의 시문을 보고 크게 찬사하였다고 말하고 있다.

盧相이 송축에 고죽과 손곡의 시가 있는 것을 보고 쓰기를 당대 문장의 우두머리는 오직 李와 崔뿐일세.⁸⁹⁾

라고 평하고 있음을 볼 때 三唐派의 평가는 이미 ‘湖蘇芝’들로부터 호평을 받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IV. 結語

조선 초중기에 황정견과 진사도를 힘써 배운 이는 정사룡, 노수신, 황정욱 등 ‘호소지’들이었다. 그들은 해동강서시파의 일군으로서 황정견과 두보를 정점으로 하는 옛 시인들의 장점을 취하고 새로움을 창출하는 ‘以古爲新’과 비속한 표현을 만들어내는 ‘以俗爲雅’ 혹은 ‘點綴成金’의 작법을 제창하였다. 그들은 두보의 후기 시에 나타나는 拗體를 구사하고 생경한 律格을 구사하여 잘 쓰지 않았던 궁벽한 用事들을 활용하였다.

조선시단은 목릉성세를 맞아 性情美學을 구사하였고 이는 퇴계의 ‘溫柔敦厚’와 栗谷의 ‘溫柔忠厚’로 요약된다.⁹⁰⁾ 16세기 성리학의 추종자들은

88) 盧守愼, 『蘇齋集』, 「興原舟中贈李達」에서 이달에게 준 시편이 보인다.

89) 許筠, 『惺叟詩話』 55, “盧相 見僧軸 有孤竹及益之詩題曰 ‘當代文章伯 惟稱李與崔.’”

‘以物觀物的 外物認識’이 대세적인 이론이었다. ‘以我觀物’은 주관정의인 我가 개입되어 偏僻되고 어두워 道體를 흐린다고 보았다. 그러나 시는 情이 배제된 理智的 사고로만으로 쓸 수 없으므로 ‘公而明’으로 수양하여 속되지 않는 미의식을 추구하였는데 이것이 ‘性情美學’의 구현이었다.⁹¹⁾

그러나 노수신 등은 詩的 理念 보다는 그 상황을 중시하였으며 人慾을 긍정적으로 인식하여 감정을 자유스럽게 표출한 시를 쓰게 되었고 당시의 詩壇에 큰 파란을 초래하기도 하였는데⁹²⁾ 이는 人慾을 긍정하는 강서시파 논리에 융합되기도 한 것이다.

조선 초부터 명종조까지는 고려조의 연장으로 송시 문학을 따르다가 穆廟조에 이르러 당시를 배우려는 사람들이 많아져 王世貞, 李攀龍의 시가 모방되기 시작되었으며 학당의 풍조는 宣祖朝에 이르러 시풍변화가 더욱 두드러지고 ‘호소지’가 두보의 법을 얻었고 ‘삼당파’가 뒤를 이었음을 확인 할 수 있다⁹³⁾

‘호소지’ 모두는 唐風을 이루고 있었으므로 學唐派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唐風을 크게 떨친 三唐詩人은 모두 이들에게서 영향을 받은바 크다. 정사룡은 海東강서시파의 작법으로 典故의 빈번한 이용, 奇字의 사용, 기발한 比喻의 창안, 의경의 치밀한 조직을 활용하고 있는데, 典故 사용 및 의경의 치밀한 조직은 黃庭堅과 李商隱을 함께 배우면서 나온 것이며, 특히 李商隱의 공교롭고 치밀한 언어구사를 배우고, 李賀, 韓愈 등 기벽의 시풍을 취하던 자들의 시풍도 함께 수용하여 ‘奇古峭拔’하다는 평어를 듣게 되었다. 겹하여 정사룡의 詩는 그의 江西詩風 속에 唐詩

90) 李敏弘, 『朝鮮中期詩歌의 理念과 美意識』, 성균관대학교출판부, 1993, p.32.

91) 邵雍, 『皇極經世書』, 『觀物外篇』 下, “以物觀物性也 以物觀物情也 性公而明 情偏以暗.”

92) 奇大升, 『高峯集』 卷1, 『續集』. 人慾을 긍정한 노수신의 思惟는 退溪와 추종자들의 강력한 비판을 받았고 奇大升은 이단에 몰들여 聖人의 도를 더럽혔다고 질타하였다.

93) 註8) 참조.

風이 가미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는 杜甫에 상당한 조예가 있고 그가 배운 西崑體가 晚唐을 추종하는 것이므로 艷麗한 晚唐風이 함께 검출되고 있으며 그의 시 「春興」·「夏日題洪陽繫風樓」·「見朝」 등에서 확인할 수가 있다.

노수신의 시는 강서시의 영향을 받아 기이하면서도 웅장한 미감을 주고 있으며 작법에 있어서는 黃·陳 보다는 杜甫를 통해 습득하고 스스로 경지에 이르도록 노력하여 나름의 성과를 이룩하였다. 그는 卑俗한 시어를 사용하여 干支, 年號, 官職, 地名 등의 고유명사를 과감히 시어로 수용하였고 그 결과 생경하면서도 참신한 의경을 창출함으로써 새로운 도전을 시도하였는데 「遞右相」·「孤石亭」·「鄉人乞詩」 등이 그러한 유형이다. 그는 두보의 시법을 세밀하게 체득하고 자신의 현실세계와 교합하여 詩感을 형상화하였다. 「贈大谷處士」 등의 작품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景物을 읊은 것 중에서 唐風을 구사하게 되는데 「十六夜喚仙亭」·「道望火山」 등이 이에 속한다. 그는 백광훈에게 두보시의 모범을 보이고 이를 전수하고 있는 것이다.

황정욱의 시는 黃·陳과 두보를 모범으로 하였고 두 계열로 구분되는데 하나는 贈別詩이고 하나는 景物詩이다. 그는 贈別詩를 통하여 자신 처럼 불우한 인물들을 등장시켜 자신의 불행을 代位 시키고 그 속에 울분과 소회를 표출하고 있다. 「送人赴遂安郡」·「送沈公直忠謙赴春川」·「次寄尹子仰」 등의 작품이 여기에 속한다. 그의 景物詩는 雄壯한 미감을 자랑하는데 「詠海」·「題砥柱臺」 등이 있다. 그가 바다를 읊은 일련의 작품에서는 性理學的 개념어를 이용하여 江西詩의 작법을 응용하고 있음을 살필 수 있다.

‘호소지’ 문학의 文學史的 意義는 16세기 시풍의 轉換을 先導하였고 朝鮮 官人文學을 頂上으로 올려놓은 공로 외에도, 호음은 관각문인으로서의 역량을 다하여 對明外交등에 기여하였고, 소재와 지천은 갖은 풍진을 超克하여 桎梏의 삶속에서도 忠君 愛民의 좌표가 흔들림이 없었다. 그들은 江西詩派의 일군으로 새로운 宋詩 전형의 고답적이고 정형화된

시형 식을 과감히 혁파하여 자유분방하면서도 心性에 다가오는 시세계를 개척하였다. 그들의 무대는 다시 三唐派에게 전해지고 선조 이후의 시대를 개척하였다. 다만 三唐派 모두가 시대적 불운과 단명으로 시의 지향이 크게 反響을 일으키는데는 한계에 이른 것이 가석한 일이다. ‘호소지’가 唐詩風을 이들에게 전수해준 이후 삼당시인이 전개해낸 여러 업적은 다시 심도 있는 조명이 필요하다.

본고가 의도 했던 것은 당풍의 변환이 이루어졌던 宣祖朝에 이를 주도했던 ‘호소지’들의 송시에서 당풍으로의 시풍 변환을 살피고 ‘삼당파’에게 미쳤던 영향에 대해서도 확인하고자 하였다. ‘호소지’들의 시의 원류는 송시였으나 훗날 黃·陳이 주도했던 江西詩를 배우고 두보에 매료되어 다시 唐詩를 쓰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들의 작품 속에서 시풍을 확장하는 것은 다소 무리라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시에는 이미 이와 같은 태생적인 송시가 갖는 여러 長處가 함께 아우러져 있기 때문이다. 본고의 집필 중 지면의 제한으로 ‘호소지’ 3인의 시세계를 당시풍이 묻어나는 작품을 중심으로 밀도 있게 분석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의 논제는 ‘湖蘇芝’文學과 ‘三唐派’ 영역에 이르기까지 조선 초 중기 문학을 상호 비교하고 ‘삼당파’가 뿌린 업적도 입체적으로 구명해 나가는 것이 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參考 文獻>

- 金昌協, 『農巖全集』, 景文社, 1980.
- 盧守愼, 『蘇齋集』, 『韓國文集叢刊』 35, 民族文化推進會, 1990.
- 李肯翊, 『燃黎室記述』.
- 李晬光, 『芝峯集』, 成大大東文化研究院, 1974.
- 鄭士龍, 『湖陰雜稿』, 『韓國文集叢刊』 25, 民族文化推進會.
- 正 祖, 『弘齋全書』, 太學社 影印本.
- 許 筠, 『許筠全書』, 大東文化研究院, 1972.
- , 『惺所覆瓿藁』.
- 洪萬宗, 『詩話叢林』, 『洪萬宗全集』, 太學社, 1980.
- 黃廷彧, 『芝川集』, 『韓國文集叢刊』 41, 民族文化推進會, 1991.
- 昭 雍, 『皇極經世書』.
- 王士禎, 『師友詩傳續錄』.
-
- 金台俊, 『朝鮮漢文學史』, 朝鮮語文學會, 1931.
- 金學主, 『中國文學史』, 신아사, 2008.
- 박영호, 「許筠의 詩論研究」, 『韓國漢文學研究』 제17집, 韓國漢文學會, 1994.
- 吳台錫, 『黃庭堅詩研究』, 慶北大學校出版部, 1991.
- 李敏弘, 『朝鮮中期詩歌의 理念과 美意識』, 성균관대학교출판부, 1993.
- 李炳漢, 『(增補) 漢詩批評의 體例研究』, 通文館, 1985.
- 李秉岐, 『國文學全史』, 신구문화사, 1957.
- 李炳疇, 『韓國漢詩의 理解』, 민음사, 1991.
- 李鐘默, 『海東江西詩派研究』, 太學社, 1994.
- 정 민, 『穆陵文壇과 石洲權輿』, 太學社, 1999.
- 曹喜昌, 「蘇齋 盧守愼의 詩文學研究」, 誠信女大大學院 博士學位論文, 2011.
- 車柱環, 『中國詩論』,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3.

Abstract

Poetry literature Research of 'Ho So Ji' - Initiative Tang Poetry Style
/ Cho Hee Chang*

Poetry literature of early Joseon Dynasty caused conflicts between Sarim group and Sajang group, by creating unprecedented prosperity since King Sejong the Great. This once resulted in the weakening of literature. However, going through Seonjo Dynasty, it brought about the enlightenment of Chinese literature.

Among the members of Hedonggangsuesi, 'HoEum JungSaYong'(1491-1570), 'SoJae NoSooSin'(1515-1590) and 'Jiwon HwangJungWook'(1532-1607) were the ones who left significant marks in the history of Chinese poetry, encompassing both poems of Song dynasty and those of Tang dynasty.

In general, they are called as 'HoSoJi', 'GuanKakSamGir', or 'HaeDongGangSueSi group'.

Heogyun called these three people 'HoSoJi', praising them for creating and developing Tang-style poetries. Then he confirmed that HoEum passed down Tang style to SonGog, SoJae NoSooSin passed down Tang style to BeakGangHoon and ChoiKyungChang.

Inferring to this fact, we know that Hosojji worked as a bridge that converted Song poetry into a Tang poetry. We also know that they are the transition figures who passed down Tang poetry to 'Samdang'.

So far, there is little research that has the solid view about the command of Tang poetry of these three people of 'HoSoJi'. Many of the past researches were limited to the research of individual person of HoSoji. There were only a

* Lecturer of Sungshin Women's Univ. / hichang47@hanmail.net

mentioning of HoEum JungSaYong and SoJae NoSooSin's writing style in some of the research papers.

Debaters are comparing Hoeum and Sojae, pointing out that Hoeum is good at seven-Un and Sojae at five-Un.

However, research about HwangJungWook, who is 17 years younger than SoJae, is insignificant compared to Sojae and Hoeum.

The research about Hwang Jungwook, if there is any, appears in Heogyun's writing, SungSoSiHwa: "poetry of our country was well-founded in Sunjo period. SoJae got law of DuBo, and Hwang JungWook followed after him. ChoiKyunChang and BackGanghoon learned Tang poetry, and LeeDal lightened this stream of trend." Through this writing, he is explaining that Hwang Jungwook inherited Tang style from SoJae.

This study inter-compares the characteristics of Hosoji literature, which was only fractionally mentioned.

In order to materialize the issues-so called 'Hosoji'- that have been only remained as a theory or unsolved questions, this research extracts collections of works and precedent researches about Hosoji. It also finds out the materials and poetry words needed for research and put them into new perspectives.

【Key words】 HoSoJi, GuanKakSamGirl, Tang poetry, song poetry, HoEum JungSa-Yong, SoJai NoSoo-Sin, Jichun HwangJung-Wook, group of HaeDongGangSueSi, group of Samdang.

투고일 : 4월 24일, 심사일 : 6월 10일, 게재확정일 : 6월 14일